

장애학생 부모

청각장애 편

양육 지원 가이드북



일러두기

- 본 가이드북은 총 6권으로, 제1권은 공통 양육 지원, 제2권은 시각장애, 제3권은 청각장애, 제4권은 지적장애, 제5권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제6권은 자폐성장애 및 정서·행동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 가이드북에서 장애학생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초·중고 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이드북에 수록된 내용은 전문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발간등록번호

11-1342075-000137-01

제3권

초·중·고
장애학생
양육 길라잡이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

청각장애 편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프롤로그

장애학생도 한 사람의 주체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완성되는 최고의 환경은 가정이며, 이러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는 장애 학생을 양육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둔 부모는 일반 부모보다도 역할 수행에 있어 더 많은 사회·심리·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자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특성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학생이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 학교, 장애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부모의 열망과 요구를 바탕으로 2016년에 ‘장애영유아 양육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령기 및 청소년기인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총 6권으로, 제1권은 공통 양육 지원, 제2권은 시각장애, 제3권은 청각장애, 제4권은 지적장애, 제5권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제6권은 자폐성장애 및 정서·행동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북은 2016년에 발간된 장애영유아기 후속으로 이어지는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장애학생의 부모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장애학생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고민을 질문과 답변(Q&A) 형태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 발간한 ‘장애영유아 양육 길라잡이’와 2017년에 발간한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을 e-Book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개발 내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앞으로도 장애학생 부모를 위한 양육 지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연구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연구진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국립특수교육원장 



이 권의 구성과 활용 방법

본 가이드북은 보호자가 자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와 가족이 가이드북을 활용할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절히 참고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니, 가이드북을 활용할 때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참고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권은 「청각장애 이해」, 「구어 지원」, 「수어 지원」, 「청각 중복장애」, 「행동 및 생활 지원」, 「진로와 직업」 6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장의 「청각장애 이해」에서는 학령기의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 졸업 이후 희망하는 세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녀를 농과 난청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알맞은 교육지원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의 「구어 지원」에서는 청각장애 자녀가 구어 사용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청능훈련, 말 읽기, 말하기, 구어 교과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

지원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장의 「수어 지원」에서는 청각장애 자녀가 수어라는 시각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나아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농문화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4장의 「청각 중복장애」에서는 청각 중복장애 자녀는 좀 더 독특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장의 「행동 및 생활 지원」에서는 청각장애 자녀가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제한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학교폭력이나 이성 간의 문제, 학업 곤란, 정서적 문제 등과 같이 행동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보호자가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6장의 「진로와 직업」에서는 청각장애 자녀가 학교 졸업 이후 희망하는 사회로의 진출을 위해 개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과 환경적인 요건



청각장애

을 구성해 주는 내용으로 보호자도 함께 고민하면서 중·고등학교 졸업 후의 생활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얻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01

청각장애 이해

- 15 청각장애의 정의
- 19 언어 지도방법
- 24 청각보장구
- 30 청각장애 교육지원

02

구어 지원

- 39 청능훈련
- 52 말 읽기 지원
- 61 말하기 지원
- 67 교과 지원

05

행동 및 생활 지원

- 137 행동 지원
- 148 학업 지원
- 155 정서 지원

06

진로와 직업

- 163 청각장애 학생의 진로
- 173 상급학교 진학
- 183 청각장애 학생의 취업

03

수어 지원

79 수어의 이해

87 수어 지원

98 농문화

04

청각 중복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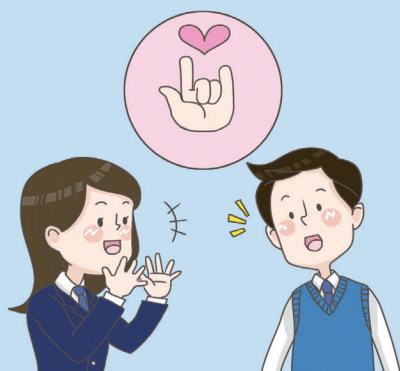
111 청각 중복장애의 특성

117 청각 중복장애의
의사소통 지원

124 청각 중복장애의
행동 지원

128 청각 중복장애의
학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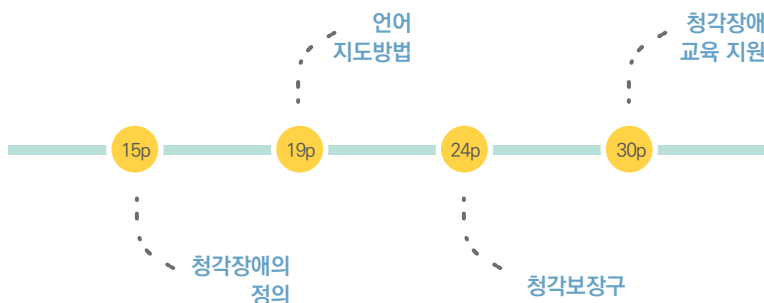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라는 용어는 농과 난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과 난청은 교육 지원 서비스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청력을 사용하여 말소리를 듣기가 곤란한 농자녀는 수어 지도를 선호할 수 있으며, 난청 자녀는 잔존청력을 활용하는 구어 지도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청각장애의 정의와 청각장애 자녀들이 요구하는 언어 지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청각보조기기의 구입 및 수술에 따르는 국가지원 서비스 정보와 청각장애 자녀의 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01

청각장애 이해



천재 화가 김기창

윤보 김기창(1913~2001)화백의 청록산수

김기창 화백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8세에 승동보통학교에 입학한 후 장티푸스를 앓아 청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생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기창 화백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대동양화 운동을 주창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산수화가로서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농아인들의 삶을 개선해 보고자 생전에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79년 한국농아복지회를 창설해 초대회장에 취임하였으며, 1984년에는 서울 역삼동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인 청음회관을 설립하였습니다.

김기창 화백은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청각장애인과 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01

청각장애의 정의



💬 청각장애는 청력기관의 손상으로 일상적인 소리를 듣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여러 분야의 학자의 견해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청각장애를 분류하는 기준과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1. 청각장애 정의

자녀가 들지도 못하고 의사 표현이 잘 되지 않는데 청각장애가 있는 걸까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해야 알아듣고, 크게 말해야 겨우 알아듣습니다. 말보다는 몸짓으로 생각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 청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로 인해서 의사 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각장애의 정의를 확인하시고 청력검사를 통해 자녀의 청각장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각장애 정의

장애인복지법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 (2004)

- 농(deaf)
음을 증폭하여 들려주거나 증폭하지 않고 들려주더라도 청각으로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심한 청각장애를 의미합니다.
- 난청(hard of hearing)
농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변동하는 청각장애를 의미합니다.

- 미국의 『장애인교육법(2004)』에서는 청각장애에 관해 농-맹, 농, 난청으로 나누어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소리와 보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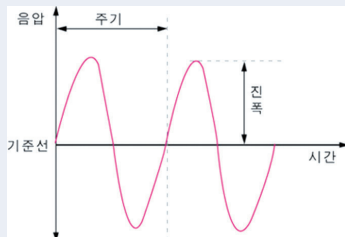
TIP

소리의 강도(dB)

강도는 소리의 강약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적 단위는 데시벨(dB)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력이 정상이다.”라고 하면 20데시벨(dB)에서 25데시벨(dB)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음도(Hz)

음도는 소리의 고저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소리의 고저를 나타내는 물리적 단위는 헤르츠(Hz)입니다. 헤르츠는 같은 모양의 파동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말소리는 125Hz에서 4,000Hz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기본주파수인 1,000Hz를 기준으로 저주파 대역인 125Hz에서 고주파 대역인 4,000Hz의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고르게 들을 수 있어야만 말소리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주기는 소리의 고저를 나타내는 것으로 헤르츠(Hz)와 관련이 있고, 진폭은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데시벨(dB)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청기와 말소리 바나나

보청기는 인간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125Hz에서 4,000Hz의 범위에서 소리의 강도를 증폭시켜 말소리를 듣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달팽이관의 코르티기관에서 주파수 대역 차이를 구분해 내지 못한다면 말소리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축의 125, 250, 500, 1,000, 2,000, 4,000은 소리의 높낮이인 주파수를 나타내는 숫자로서 헤르츠(Hz)입니다. 이때, 기본주파수를 1,000Hz라고 할 때 2,000Hz, 4,000Hz는 고주파 대역이 되며, 500Hz, 250Hz, 125Hz는 저주파 대역이 됩니다. 반면에, 세로축의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은 소리의 강약을 나타내는 데시벨(dB)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ㅁ/, /오/, /아/, /이/, /스/는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들을 묶은 것이 ‘말소리 바나나(banner speech)’입니다.

보청기는 말소리 바나나에 해당하는 음소를 골고루 잘 들을 수 있도록 125Hz에서 4,000Hz의 주파수 대역에서 20dB에서 25dB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해주는 장치입니다.

2. 청각장애 분류

청각장애는 농과 난청으로 나누어진다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각장애는 일반적으로 농과 난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일정한 크기(90~95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를 ‘농’이라고 하며, 그 크기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를 ‘난청’이라고 합니다.

농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잔존청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난청은 보청기와 같은 청각보장구의 도움으로 잔존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난청은 귀의 손상 부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의 외이와 중이의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전음성 난청’과 귀의 내이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감음성 난청’이 있습니다. 또한, 청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성 난청과 청각중추의 장애로 인한 중추성 난청으로 나뉩니다. 그 밖에도 둘 이상의 장애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 ‘혼합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02

언어 지도방법



💬 청각장애인에게 언어를 지도할 때 수어를 지도할 것인지, 구어를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언어 지도방법에는 청각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여 잔존청력을 극대화해서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 구어 지도방법과 시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중점을 둔 수어 지도방법이 있습니다.

1. 구어 지도

자녀가 말을 배워 말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도 하면 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잔존청력을 활용하여 구어 지도를 하면 말을 배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청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자녀들은 듣기의 제한적 능력으로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구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어 지도는 음성언어의 수용과 습득, 그리고 이를 통한 말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말의 수용과 습득은 독화를 통한 시각적 접근과 잔존청력을 이용한 청각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잔존청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어 지도는 언어 수용 활동과 언어 표현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 수용 활동’은 말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청능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능훈련은 소리에 반응하고, /ㅏ/와 /ㅓ/와 같은 말소리의 차이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방법입니다. ‘언어 표현 활동’은 말소리를 모방하는 과정으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활동에는 호흡훈련과 발음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

2. 수어 지도

수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농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학교에 다니는데 구어로 수업을 해서인지 수업시간에 집중도 못 한다고 하고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수어 수업을 하는 농학교로 전학을 고려하는데, 수어로 된 수업이 우리 자녀의 학습능력에 도움이 될까요?



시각적 의사소통 방법인 수어를 사용한다면 청각에 제한이 있는 청각장애 자녀에게 의사소통과 학습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농학교에서는 수어와 구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어는 청각장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사 표현능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으로 진행돼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수어로 표현해 주면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태어나서부터 스스로 다양한 몸짓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인 보호자께서는 구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녀의 몸짓으로 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몸짓언어가 수어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수어 환경에 자주 노출해 주고 보호자는 몸짓언어 및 수어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어는 한국 수어와 한국어 대응 수어(문장식 수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어는 한국 농인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어이며 사용하는 사람이나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대응 수어는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수어 단어를 배열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어순을 따르는 한국어 대응 수어는 수어의 의미 이해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농식 수어는 농자녀의 언어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농자녀의 농식 수어를 습득하여 언어의 독립성을 지니게 되면 농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며 보다 자존감 높은 학생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이중문화-이중언어 접근법

구어와 수어를 모두 사용해도 좋은가요?

저는 자녀로부터 '엄마'라는 말을 듣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이야기 할 때는 수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마음은 내키지는 않는데, 수어를 사용하면 구어를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수어와 구어를 모두 인정해 주는 이중문화-이중언어 접근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최근 청각장애 교육은 이중문화-이중언어 접근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한국어와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일본 사람, 중국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듯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청인들과 다른 언어 방식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수어는 농인의 모국어입니다. 수어는 농인의 언어 사용방법입니다. 자녀의 농식 수어가 그들의 1차 언어인 모국어이므로, 먼저 농식 수어를 유창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음에 2차 언어로서 음성언어를 익히도록 하는 언어 지도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수어를 잘하게 되면 구어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중문화-이중언어 접근

TIP

청각장애 자녀의 학력신장을 높이기 위해 수어를 청각장애아동의 모국어로 인정하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 환경을 바탕으로 청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자는 교수방법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이중문화-이중언어의 접근법(Bilingual Method, 2Bi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중문화-이중언어의 접근법은 청각장애 자녀의 언어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문화-이중언어의 접근법은 수어를 농자녀의 모국어로 인정하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제2외국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청인학생이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완전히 습득한 이후 영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과 같이, 농인에게 모국어로서 수어를 배우도록 하고,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중문화-이중언어의 접근법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농아동은 모국어로서 농식 수어를 익히고, 한국어는 외국어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농아동이 수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은 청인아동이 모국어를 습득해 가는 발달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법은 농을 장애가 아닌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보고, 농식 수어를 농인의 모국어로 인정하여 그들만의 문화공동체인 농 사회에서 농식 수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NOTE

03

청각보장구



💬 청각장애 자녀가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청인과 같은 경험을 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은 탄소 마이크폰, 송신기, 배터리를 이용해서 1880년대에 최초의 전기보청기를 만들었습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의 잔존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청각장애인에 게 소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1. 보청기

보청기를 착용하면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보청기를 구매하면 국가에서 보
조금을 지원해 주나요?



보청기는 잘 듣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을 증폭시켜
줌으로써 보다 잘 들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
청기 구매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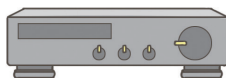
◆ 보청기의 원리

보청기는 마이크로 소리를 모으고, 앰프에서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스피커로 소리를 들려주는 원리를 아주 작게 축소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소리는 강도(dB)와 주파수(Hz)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리의 차이는 주파수에 의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ㅁ/는 저주파대역의 소리이며 /ㅅ/는 고주파대역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미소/라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려면 저주파 대역의 /ㅁ/ 과 고주파 대역의 /ㅅ/의 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주파 대역의 /ㅅ/음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청기를 사용하여 /ㅅ/에 해당하는 음을 크게 증폭해 주는 것이 보청기입니다.



송화기



증폭기



수화기

◆ 보청기와 청능훈련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모든 주파수대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청기는 종류와 성능도 다양하고, 가격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모두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의 증폭 문제이니만큼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감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말소리의 범위인 주파수를 고르게 잘 들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청능훈련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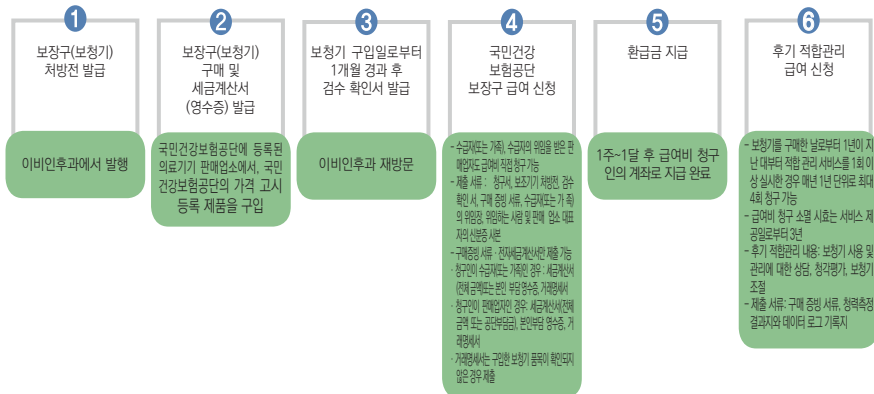
◆ 보청기 구매와 국가지원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보청기 구매와 관련하여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청기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제품 가격과 적합 관리 비용을 분리하여 5년에 한 번 한 쪽 보청기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본인 부담금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제품 가격과 적합 관리 비용은 각각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의 경우 9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관리 급여는 초기 적합관리 비용(20만원, 1회)과 후기 적합관리(5만원씩 최대 4회)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기 적합 비용은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청력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검수 확인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합 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집에서 가까운 판매업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인공와우, 골도보청기, 인공 중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15세 이하 양측 급여 대상인 경우는 수술받지 않은 반대측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급여신청 절차



❖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적합 통지를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2. 인공와우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으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인공와우 이식 수술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나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은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와우(달팽이관) 속 세포들의 역할을 대신할 인공와우를 귓속에 삽입하여 소리를 들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인공와우 이식 수술 대상

말을 배우는 것은 3세 이전에 거의 완성이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말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대뇌의 청각-언어 중추가 발달하여야 합니다. 그 발달은 생후 3세 내외까지 가장 활발하게 되므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3세 이전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활발하게 발달하는 청각-언어 중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어린이 난청에 대한 조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반면, 청소년기 이후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성공사례도 많지만,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청기로 재활훈련을 충분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보청기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팽이관이 기형이거나 청신경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농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는 언어습득 시기를 놓친 청각장애인이 구어 학습에 필요한 청각적 기호를 습득하지 못하여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인공와우 이식 수술 대상자인지, 예후가 좋은지,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합니다.

◆ 인공와우 이식 수술과 국가지원

국민건강보험은 인공와우 이식 수술 비용 중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와우 이식을 위한 치료 재료 비용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요양급여에 대한 적용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신다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에는 신규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IP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http://www.nhis.or.kr>

인공와우 요양급여 적용기준 요약

가. 적응증

1) 1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 1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단,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9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9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이 50%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이하인 경우 (단,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대상자 중 양이청 (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5) 대상자 중 양이청 (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4) 각 해당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요양 급여함. 다만, 아래의 가), 나)의 경우 순음청력 검사 및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 아 래 - 가) 요양급여적용일(2005.1.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나)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다)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공와우 급여 기준

나. 인정 개수

1) 편측 시술의 경우 인공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 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 적용함. 하지만 양측 시술의 경우에는 인공와우 외부장치를 추가 지원하지 않음.

2) 2005년 1월 15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자 중 19세 미만에서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2set(내부장치, 외부장치)를 요양 급여하되, 이후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2개 이내에서 추가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음.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상기 급여 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18.11.1. 시행)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NOTE

04

청각장애 교육지원



☞ 청각장애 학생은 듣기의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으로 말하기와 읽기, 쓰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인학생과 다른 언어수행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언어수행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이 시기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 교육적 지원과 배치

통합교육을 지속해서 받았으면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녀가 원해 농학교로 보냈는데 지금의 선택은 잘한 것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여아인데, 가까운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방과 후에는 언어 치료를 받았고, 성적에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전학 가기를 원해 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전학을 보냈어요. 잘한 선택일까요?



자녀가 원하는 환경이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봅니다. 자녀가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행복해한다면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학교 배치는 대개 보호자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보낼 것인지 통합학급으로 보낼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청각장애를 가진 또래와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함께 청각장애 전문 교육을 받으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농문화를 바탕으로 수어 소통 능력도 발달시켜 의사소통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학교 통합교육은 완전통합의 가치에 따라 청인학생과 더불어 생활하는 가운데 잠재적으로 다양한 학습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청인들과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써 장차 사회에 나아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의견보다는 자녀의 특성과 요구를 우선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가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나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나요?



청각장애 학생은 또래의 청인학생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청각장애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는 공통 교육과정(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과정에 해당)과 선택 교육과정(고등학교 3년 과정에 해당)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들은 일반학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에서 제공됩니다. 하지만 청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병행하여 편성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바깥이 ‘깜깜하다’와 ‘컴컴하다’의 경우 음성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 학생은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듣기를 필요로 하는 음악과의 경우에도 청각장애 학생은 곡을 따라 부르거나 음악 감상하기 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수학이나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서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에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병행하기도 하는 기본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학교에서만 적용됩니다.

한편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이 장애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장·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과(군)별 증감 시수를 활용하여 ‘농인의 생활과 문화’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하기도 합니다.

3. 중복장애의 교육과정



우리자녀가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데, 특수학교에 가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행이 어려운 중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대안형 교육과정인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각장애와 다른 장애를 함께 가진 중복장애가 많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중복장애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는 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교과군별로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생활기능 영역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 배치된 중도·중복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그 수행수준을 고려하여 교과 내용을 생활 기능적인 활동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유형 및 활동 대상

TIP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목적에 맞추고, 교육 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 학생의 교육 요구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표 1〉 교육과정 유형 및 활동 대상

교육과정 유형	활동대상
특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 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4. 진로설계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이 꿈꾸는 일을 할 수 있게 교육시키고 싶어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밝게 학교생활을 해서 즐기는 하지만, 어차피 청인들과 어울려 직업도 구해야 하는데 진로에 고민이 많아요.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종이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진출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특별대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특수교육기관에서는 직업교육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와주고 있으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장애 부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로설계는 장차 학생들이 경제적 보상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자녀들이 사회 여러 분야의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청각 장애학생의 취업은 노동, 기계 조작, 잡역 등과 같이 육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단순 노동직종 등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흥미와 특기를 잘 살려 직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꿈과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도움되는 사이트

TIP

정보제공 사이트	홈페이지
워크 투게더	www.worktogether.or.kr
커리어넷	www.career.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http://www.sdeaf.org
청음복지관	www.chungeum.or.kr
삼성소리샘 복지관	www.sorisaem.net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www.withwith.or.kr
대전광역시립 손소리 복지관	djsonsoni.or.kr
제주도 농아 복지관	www.deaf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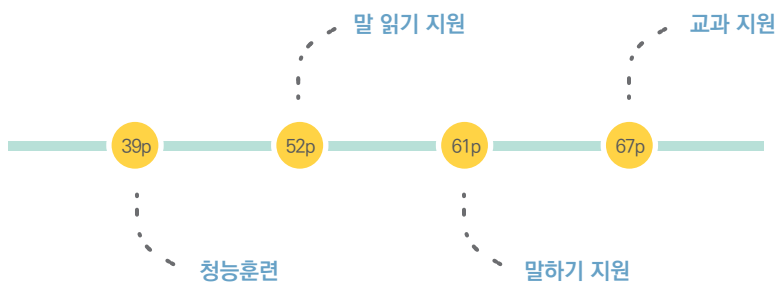


청각장애 자녀는 구어 사용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어 사용은 의사소통 및 학습활동, 읽기 이해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청능 훈련, 말 읽기, 말하기, 구어 교과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 a r t

02

구어 지원



벗의 우정으로 건축사 꿈 이룬 청각장애인

경북 영천에 있는 건축설계회사인 동아건축 구○○ 소장(44세)은 청각언어장애인이다. 구○○ 소장은 3살 때에 열병을 앓아 청각장애인이 되었다. 5세 때에 대구 ○○학교에서 주 2회 언어치료사와 반복적으로 그림 낱말카드를 보면서 같은 단어를 수없이 되뇌며, 자신이 하는 말도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입으로 내는 소리가 이럴 것이라는 짐작과 반복으로 소리 흉내 내기로 의사소통하였다.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아닌지라 교사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입 모양을 뚜렷하게 발음해 주지 않고 칠판에 글을 쓰면서 등을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말이 너무 빨라서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음성과 언어의 연결고리는 정말 수수께끼 같았고, 그렇게 독학을 하는 데에 한계를 느낄 무렵, 고등학교 시절 방학 때 만난 친구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는 고행을, 알아가는 재미로 바꾸어 주었고, 친구도 구 소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고 꿈을 가지도록 해주었다.

01

청능훈련



☞ 구어로 대화하거나 학습하는 데 있어 듣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능훈련은 들을 수 있는 잔존청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잔존청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각보장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각보장기구는 청력 손상 시기와 유형에 따라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선택하게 됩니다. 청능훈련은 이러한 청각보장기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소리나 말소리를 변별하고 자각하게 도와줍니다.

1. 보청기

자녀의 보청기 착용 시기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자녀는 성장기에는 몰랐다가 만 4세경이 돼도 말이 늘지 않아 청각검사 후 난청으로 진단받아 그 후로 꼭 보청기를 착용 중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아직도 필요한 상황에서만 단어로 말을 해요. 주변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착용시기가 이룰수록 좋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요?



보청기는 청각장애 발견 당시부터 빨리 착용 할수록 잔존청력을 활용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듣기 능력은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4세는 언어 발달 시기 이내라 착용시기가 늦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듣지 못해서 언어 발달에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력과 달리 청력은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바로 기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후 꾸준한 청능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청각재활에 관한 이론과 재활 방법에 대한 정보는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의 양육교육정보 온라인 콘텐츠 중 부모지원 콘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청각장애 학생의 청능재활을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① 좋은 쪽 귀에 소리를 들려줍니다.
- ② 제시하는 음성은 일반적으로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 ③ 주위 잡음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 ④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구어 자극이 필요합니다.
- ⑤ 구두 언어의 가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각적으로 큰 소리, 작은 소리, 억양 등 다양한 소리를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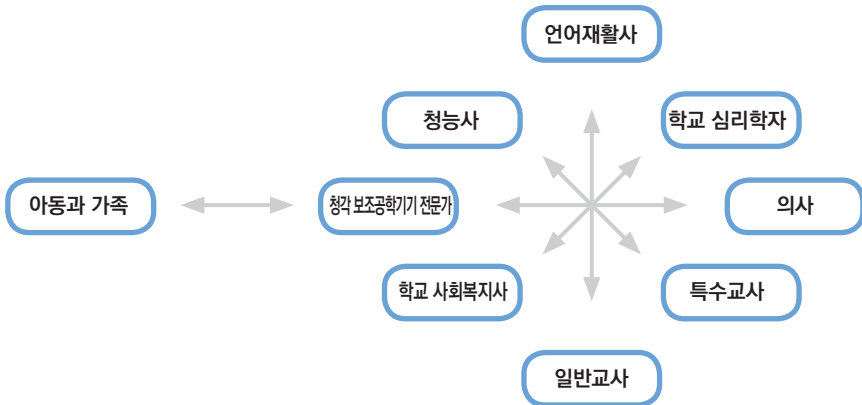
잘 들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

TIP

변화	최적으로 들리는 경우	최소로 들리는 경우
배경소음	부재	존재(종류나 강도)
거리/위치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마이크로폰에 가깝게 근접하여	화자로부터의 거리를 멀리하여
반복	요구에 의해 반복함	구어 메시지는 한 번만 제공함
길이	짧은 발화	긴 발화
복잡성	짧은 발화	긴 발화
비율	느린 구어 비율	짧은 구어 비율
초분절적 요소	특별한 음도나 강도 혹은 지속적인 단서로 구어를 강조	특별한 청각적 강조가 거의 제공되지 않거나 없음
분절적 요소	특별한 음향학적 특징(위치, 방법, 음성단서)의 차이	특별한 청각적 강조가 거의 제공되지 않거나 없음
표적의 위치	단어, 구, 문장 혹은 전체 메시지의 끝부분	단어, 구, 문장 혹은 전체 메시지의 시작 부분
상황	선택형 질문	개방형 질문
친숙한 화자	친숙한 음성	친숙하지 않은 음성

2. 구어란?

◆ 구어 중재 프로그램의 팀 모델



청각장애 자녀들은 구어 또는 수어로 언어를 표현합니다. 구어는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인공와우를 포함하는 촉진적이고 적극적인 의료적·청능학적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인들에 비해 표현 언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보호자가 적절한 시범을 제시하고,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뇌양성 이해 부족이나 관용어 이해 오류, '앓다. 안다'와 같은 동음어 이해 및 활용)을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소통 향상과 사회적 기술에서 듣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일대일 교육으로 자녀의 구어 향상을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그들의 구어 이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음성을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자극을 위해서 듣기, 언어, 말하기, 인지 영역의 발달 패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영역별로 자녀의 발달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규학급으로의 교육적·사회적 통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청능훈련의 구체적인 방법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청능훈련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 3세부터 청각장애 전문 치료실을 꾸준히 다녔습니다. 자녀가 재활 훈련받을 때마다 옆에서 관찰하면서 어떤 소리 자극을 제시하는지 봤었는데, 언어재활사는 집에서도 꾸준한 청능훈련을 권합니다. 집에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가정에서 청능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듣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청능훈련을 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서 지도하여야 합니다.

- ① 청각 환경은 '조용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적응할수록 '일반적인 소음 → 시끄러운 환경'으로 점차 바뀌 줍니다.
- ② 제시하는 음원의 바로 옆에서 들려주다가 점차 '음원에서 50cm → 음원에서 1m → 음원이 있는 건넌방 → 다양한 거리'에서 제시합니다.
- ③ 소리 탐색 또는 소리를 낸 근원에 대한 찾기 훈련을 합니다.
- ④ 소리에 대한 선택적 주의 집중을 위해 음의 존재를 알고 반응하기, 소리를 즐기며 주의 집중하기, 작은 소리까지 잘 들으려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 ⑤ 들려주는 말소리를 반복하도록 하거나 들려주는 말소리에 해당하는 그림을 지적하거나 받아쓰기 활동을 통해 자녀가 그 음소를 알고 있다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구어 이외 '음도, 강도, 리듬, 강세, 억양, 남·여성 목소리, 성인·아동 목소리' 등의 초분절적인 요소도 제시해야 자칫 로봇 소리 같은 무미건조한 목소리 사용을 예방합니다.
- ⑥ 제시하는 소리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지/바다'를 들려주며 같은 소리로 시작한다고 하거나 바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지/가지' 앞소리가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 ⑦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하기, 지시 따르기, 고쳐 말하기, 대화 참여하기' 등의 활동에서 자녀가 이해한 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청능훈련을 위한 평가

자녀의 청력 손실 정도로 어느 정도 듣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 보청기를 착용 중인 중학교 2학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몰드 제작 때문에 보청기 회사에 정기 방문 중인데, 청력도에 나오는 수치로는 실제 듣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혹시 자녀의 귀 상태에 따른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아는 방법은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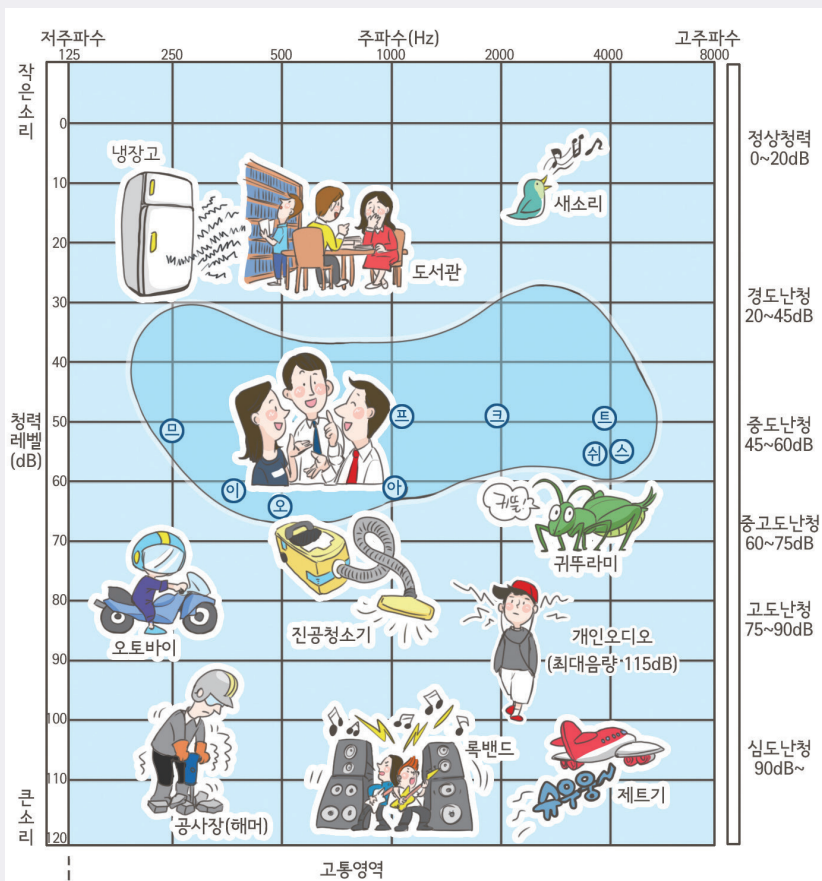
환경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리 크기에 따른 환경음 자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리의 크기 (dB)	난청도	음성의 강도	사회음의 예	회화의 이해도
0 10 20	정상	청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소리	• 방송 스튜디오 • 침실의 벽시계 소리	속삭이는 소리까지 완전히 알아듣는다.
30 40	경도	조용한 회화	• 도서관에서의 조용한 회화 • 귀뚜라미의 가장 큰 소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듣기도 하고, 잘
50 60	중도	보통 회화	• 자동차가 보통 속도로 달리는 소리 • 세탁기 소리 • 시끄러운 사무실 소리	보통의 회화를 겨우 알아듣는다.
70 80	중고도	큰 소리의 말	• 시끄럽게 봄비는 레스토랑 • 지하철이나 버스 속의 잡담 • 시끄러운 공장	큰 소리의 회화가 겨우 가능 귀 가까이에서 모음 식별은 가능하지만, 자음의 식별은 곤란하다.
90 100	고도	약간 떨어진 곳에서 외치는 소리	• 지하철(기차)이 통과할 때 소음 • 피아노와 트럼펫의 최대음 • 못 박는 소리	큰 소리는 겨우 느낄 수 있지만, 이해는 곤란하다.

소리의 크기 (dB)	난청도	음성의 강도	사회음의 예	회화의 이해도
110 120	심도	귀 가까이에서 외치는 소리	- 비행기 프로펠러의 폭음(상공 50m 이상) - 제트 엔진의 소리 - 착암기 소리	매우 큰 소리를 겨우 느낄 수 있다.

1. 주파수 영역에 따른 말소리 배열: 스피치 바나나

TIP



2. 청력검사

TIP

보청기를 착용하고 평가한 결과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청력도와 관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평가에 포함되는 절차

- Case history/ 보호자 관찰 보고
- 순음 검사, 어음 검사, 종이 검사, 이명 검사, 중추 청각처리 기능 평가

보청기와 관련된 검사

- 보청기를 적합(fitting)한 날에 실시
- 최고 볼륨뿐만 아니라, 사용자 볼륨을 30~90일 간격으로 체크
- 보청기를 수리할 때마다, 내부 기관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
- 보호자가 듣기를 검사와 행동관찰에 참여

보청기 반응

- 소리 상황에서 보청기 반응 파악
- 보호자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음성과 Ling의 6 sound에 대한 반응 여부 파악

보청기 평가

- 구어 인식
- 조용한 곳이나 소음 환경 속에서 55dB 크기의 단어 확인하기
-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250~6000Hz 주파수 대역에 반응여부 파악
- 한쪽 귀에만 보청기를 착용하고 비교

5. 보청기 적응도 평가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여 청력이 나빠져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는데, 음악전문가인데도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보호자입니다. 자녀가 실용음악과를 목표로 입시 준비 중인데 대부분 시간 연습실에서 드럼이나 전자기타 연주를 연습하고, 평소 듣는 음악도 시끄러운 편인데 이어폰을 낀 상태로 크게 듣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자녀가 좋아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입학 후 대학할 때 어려움이 발생해 검사해 보니 병원에서는 보청기 착용을 권합니다. 자녀가 계속 음악을 전공해야 하는데 꼭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나요?



전공하는 악기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전보다 이어폰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삼십 대지만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면 최상의 청력을 유지하고 싶으실 것이고, 보청기 사용이 소음을 더 크게 받아들일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일반 생활할 때는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소음 상황에서는 때에 따라 착용을 권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착용하듯이 청력이 떨어질 경우 보청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경은 빛의 굴절만 바꿔 주면 정상 시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귀의 손상은 청신경의 손상도 동반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를 크게 증폭시킨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팽이관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소리 전달 경로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는지, 청력손실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보청기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 학생의 주파수별 청력에 맞추어 소리를 증폭시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청기의 효과는 청각장애 학생이 말소리를 어느 정도 변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말소리 변별은 소리 전달 경로 중 어느 부분의 손상인지에 따라 차이가 큼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청기가 원래의 청력을 100% 되돌려줄 수 없지만, 보청기를 맞출 때 난청의 유형과 병변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보청기 fitting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적응 기간은 최소 1달이 필요하며, 보청기 fitting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처음 보청기 착용 후 조용하고 익숙한 환경의 소리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보청기 소리에 적응한 뒤 소음이 있는 환경까지 확대합니다. 주변의 작은 환경음도 귀 기울여 들으면 점차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일정시간 착용을 권하며 착용 시간도 차츰차츰 늘려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는 처음 착용하면 목소리가 울려서 조금 다르게 느껴 집니다. 신문, 책 등을 읽으며 목소리에 적응하면 다소 생소하게 들리던 현상도 줄어들습니다. 보청기 착용 후 대화를 통해 적응해도 좋습니다. 이럴 경우 평소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목소리의 화자에서 점차 낯선 사람으로 바뀝니다. 또한, 대화하는 사람의 수도 한 명에서 점차 늘립니다. 또한, 대화할 때 이야기가 잘 들리는 자리에 앉고, 되도록 주변 소음을 줄이고 상대방의 입을 보며 듣는 연습을 같이하시면 좋습니다. 보청기는 물과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빼두어야 합니다. 혹시 물에 닿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닦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건조해 주세요. 취침할 때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습기 건조제 안에 넣어주세요.

6. 인공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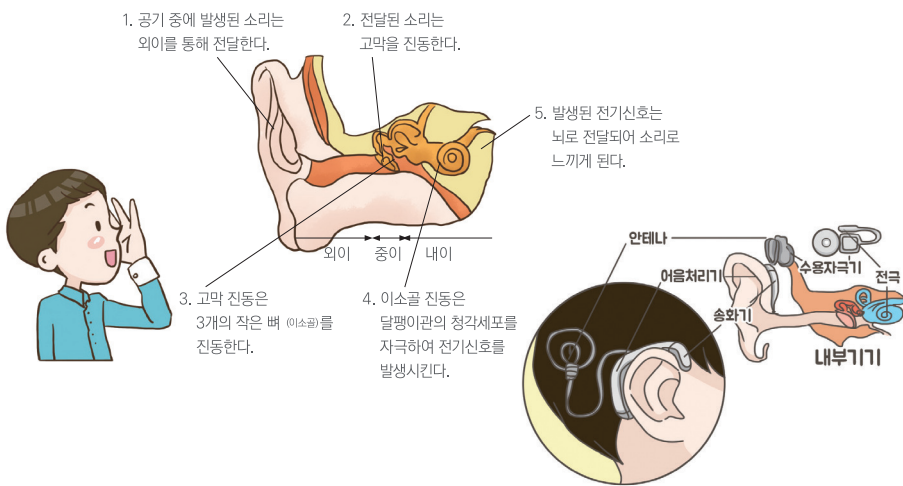
1 인공와우

인공와우는 무엇인가요?



인공와우는 소리 자체를 탐지해서 전기신호로 바꾸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외부기기와 내부기기로 나뉩니다.

인공와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몸 밖에 착용해 소리를 받아 전기신호로 바꾸는 어음 처리기이고, 다른 하나는 몸 안에 이식돼 어음처리기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 청신경에 전달하는 이식체입니다. 이식체는 백금으로 만든 실 같은 전선이 들어 있으며, 이를 달팽이관으로 삽입, 청신경을 자극하여 소리를 전달합니다. 전선이 달팽이관에 삽입되면 청각 세포가 파괴돼 기존에 남아 있던 청력이 손실되기 때문에 인공와우는 청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더 이상 보청기를 청각 재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② 인공와우와 보청기 겸용 사용 여부

양쪽 귀의 차이가 심한 자녀에게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자녀가 왼쪽은 60dB, 오른쪽은 90dB로 양 귀의 듣는 능력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왼쪽 귀를 돌려 들으려고 하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생활해서 척추도 한 쪽이 더 올라갈 정도로 몸이 뒤틀리네요. 혹시 잘 들리지 않는 쪽 귀에만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반대쪽은 보청기만 착용해도 될까요?



인공와우 수술을 받지 않은 반대편 귀에 보청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한쪽은 인공와우, 반대쪽은 보청기라면 혹시 소리를 듣는데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지 혹은 새로운 인공와우 소리를 익혀야 하는데 방해받을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뇌는 새로운 적응하는 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같이 쓰더라도 인공와우라는 새로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음역대는 50~60dB 청력치가 나오고, 1000Hz 이상 주파수 영역에서 급격히 청력이 떨어지는 소음성 난청환자들에게 저음역을 살리는 수술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청력이 없는 고음역은 인공와우로 듣게 하고 남아 있는 저음청력을 보청기로 듣게 하는 것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언어의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음악 이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과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인공와우 수술 초기, 인공와우에 의한 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기간에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보청기를 사용하게 하여 소리 듣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인공와우 이식 수술 후 청능훈련

인공와우 이식 수술 후 청능훈련이나 언어훈련이 따로 필요한가요?

어릴 때부터 보청기를 착용했고, 언어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항상 듣는 데 집중하다 보니 대화 주의력도 떨어지고, 저녁이 되면 자녀가 지쳐 돌아오는 모습이 안쓰러워 중학교 입학 후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언어 재활을 받았는데도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청능훈련이나 언어치료가 필요한가요?



인공와우 이식 수술 후 들리는 소리는 이전과 다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청능훈련 및 언어재활을 받아야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후 단어를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자녀가 말을 잘 구사하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더욱 용기를 얻고 말을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익힐 때 반복해서 듣고 말하기를 연습해야 조금씩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듯이 이식 수술 후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언어를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02

말 읽기 지원



💬 청각보장구를 사용해도 잔존청력만으로는 구어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입술을 읽는다고 독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 읽기는 말하는 사람의 입술 움직임, 표정, 몸짓, 상황 등을 보고 정보를 찾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청각 문제를 가진 자녀와 대화할 때 주의점, 말 읽기를 도와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말 읽기

자녀가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 청인들과 자주 어울려야 하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가 청인과 대화할 때 어떤 방법을 권해야 하나요?



음성 이외에도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상황, 문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각손실이 적으면서 언어지식이 풍부한 자녀라면 별도의 말 읽기 지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각손실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이는 ‘스스로 연습하는 양, 경험, 청각 활용의 정도, 습득의 개인차, 언어에 대한 지식, 수업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 읽기는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 읽기를 가르칠 것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녀의 청력치, 어느 정도 구어를 사용하고, 국어와 관련된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 읽기를 권장하지만, 우리 자녀는 소심해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어떻게 말 읽기를 지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는 어릴 때부터 수줍음이 많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약간 소심하다 싶을 정도로 낮가림도 심합니다. 자녀 성격이 이런지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입 모양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연습을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보세요.

‘말소리를 전부 듣기도 어려울 거고, 말소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실패의 두려움’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말 읽기를 먼저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할 때의 입 모양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녀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과의 말 읽기 훈련은 중요합니다. 입술을 보라고 요구하기보다 왜 입술을 봐야 하는지, 상대와 소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과장되게 크게 소리를 내거나 지나치게 천천히 말하는 것은 입술 모양이 왜곡됨으로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평소 /ㅅ/음소를 잘 듣지 못한다면 /사자/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사자/를 반복하여 소리내어 입술모양을 보여줌으로써 /ㅅ/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말 읽기는 낱말이나 문장으로 지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발화 의미를 먼저 파악한 후 문장이나 음으로 개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용 가능한 말 읽기 단서(화자의 안면 표정, 제스처, 상황, 통사 구조 및 화용론적 맥락)를 모두 활용하고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말을 보여주시기를 권합니다.

말 읽기는 시각을 통해 말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양식으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입술 모양이나 표정, 제스처 및 기타 상황 단서를 시각을 통해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말 읽기는 듣기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말 읽기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요소로는 ‘화자의 조음 운동에 나타나는 시각정보, 화자의 표정, 제스처, 상황, 통사 구조 및 화용론적 맥락’ 등이 있습니다. 말 읽기를 하는 청자는 지적인 능력을 동원하여 말의 흐름, 심상, 지각된 내용 등을 파악하고, 의미와 결합이 잘못된 것은 바꾸고 빠진 부분은 보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활한 말 읽기를 위해서는 얼굴이나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얻거나 시각적 주의집중과 같은 시·지각 능력, 단어나 문장의 일부분을 보고 전체적인 형태를 인식하는 종합 능력이 중요합니다. 종합 능력은 추측에 의한 지각, 사고를 통해 빠진 요소를 보충하는 능력이 해당합니다.

2. 말 읽기 지원의 필요성

청각장애 자녀에게는 꼭 말 읽기 지도가 필요한가요?

자녀에게 말 읽기 지도를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배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낚뉘도 스스로 잘할 것 같은데, 말 읽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요? 오히려 자녀가 싫어하고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자녀에게 말읽기 교육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각장애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말 읽기 기술을 습득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 보장구(보청기 및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하더라도 /ㅅ/과 같은 음소들을 잘 듣지 못한다면 체계적인 말 읽기 지도가 필요합니다. 말 읽기 지도는 1~2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 읽기 훈련을 멈추게 되면 훈련 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말 읽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청각장애 자녀에게 말읽기를 교육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1. 입술과 턱을 많이 움직이면서 말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2. 정상적인 말 속도와 관용적인 방법으로 조음합니다.
3. 말의 정상적인 리듬과 강세를 유지합니다.
4. 말에 내포된 감정과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표정을 풍부하게 짓습니다.
5. 항상 청각장애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입 모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들려 줍니다. 말 읽기를 하지 못한 경우 같은 말을 반복하여 들려 줍니다.

3. 대화할 때 고려사항

자녀와 말할 때 말소리 제시와 입 모양 강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와 말할 때는 엄마 얼굴을 쳐다보고 천천히 말하려고 교육시켰습니다. 자녀의 청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자녀가 잘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입술 읽기를 강조하게 되더군요. 자녀에게 말할 때 입 모양만 정확히 하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대화할 때는 말소리와 입 모양이 모두 중요합니다.

구어의 확인, 이해와 구어 명료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분절적 자질 학습은 중요합니다. 초분절적 자질에는 '음의 길이, 빠르기 변화, 고음과 저음, 음의 세기, 강세, 억양, 감정에 따른 목소리 변화, 성별에 따른 목소리'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 모양만 제시하고 소리를 내지 않는 교육은 교육적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대화할 때 고려사항

- (1) 자녀의 의사소통 시도에 반응하고, 자녀가 대화 주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주목하고, 자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녀가 한 발화와 관련된 말을 합니다. 자녀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표정, 제스처, 그리고 발성에 반응해 줍니다.
- (2) 자녀가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대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길게 하도록 합니다. 청각장애 자녀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또 얘기해 줘. 누가 그랬어?” 등의 말로 자녀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림에서 자녀가 대답해야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3) 청각장애 자녀에게 간단하게 말해 줍니다.
자녀에게 할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려 줍니다. 정리된 내용은 장황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4) 명료한 말로 말합니다.

약간 느린 속도로 과장되지는 않지만, 좋은 발음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낱말을 강조하고 절과 절 사이에 쉼을 둡니다.

(5) 긍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돼, 하지 마.” 등의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청각장애 자녀를 대화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대화를 너무 많이 통제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대화를 많이 통제하는 어른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거나 자녀가 발화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이름 대기를 시킵니다. 혹은 자녀의 말이나 언어를 수정하고, 따라 하도록 요구하고, 대화주제를 자주 바꿉니다. 이러한 어른과의 대화에서는 점점 더 수동적이 되고 위축됩니다.

4. 말 읽기 지도방법

말 읽기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말 읽기를 자녀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 읽기 지도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 읽기는 시각을 통하여 화자의 입 모양이나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이해함으로써 말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 읽기를 위해서는 시·지각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말 읽기 교육은 모음 말읽기, 자음 말 읽기, 그리고 시각 기능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청각장애 보장구(보청기 및 인공와우 기기)의 착용만으로는 청각장애 자녀가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말 읽기를 병행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말 읽기는 집단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

게 하고, 인간관계 또한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게 합니다.

말 읽기 지도할 때 단어나 음절만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문장 속에서 단어나 음절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 ‘선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고자 할 때, “나는 생일 선물을 받았다.”를 [나는 생일 선물을 바닷다.]라는 문장으로 지도합니다. 이때 자녀는 /스/를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는 이 문장을 [나는 앵일 언물을 바닷다.]로 지각하게 됩니다. /스/ 발음을 판단하게 해주는 보완적인 것이 말 읽기입니다. 말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지각할 수 있도록 문장과 문장 사이를 분명하게 끊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념적으로 ‘생일’과 ‘선물’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주고 난 후에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복해서 같은 문장을 제시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자녀가 스스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는 말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청능훈련이 중요합니다.

5. 말 읽기 한계

말 읽기를 해도 대화 중 농치는 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자녀는 말 읽기를 사용하지만, 가끔 상황을 놓치면 무슨 말인지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말로 이해하고 대화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사오정이 라고 농담을 합니다. 사춘기다 보니 친구들의 농담에도 민감히 반응하여 집에 오면 괜히 짜증을 부립니다. 말 읽기는 하는데 잘못 이해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데 왜 그럴까요?



말 읽기는 청각을 대신할 수 없지만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므로 시각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말 읽기는 극도로 어렵고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다르게 소리 나고 발음되지만, 입술 모양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늘/마늘’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단순히 입의 움직임으로 변별하기 힘듭니다. 말 읽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듣는 사람의 시각적 단서가 손이나 음식 씹는 활동으로 인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화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입술을 움직이거나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입술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 읽기의 여러 문제점에도 말 읽기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의 귀중한 보조수단입니다.

효과적인 말 읽기 지도 목표

TIP

- 적극적으로 말 읽기 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 말 읽기 과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킵니다.
-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좌절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개발 능력을 기릅니다.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제공하여 말 읽기 효과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킵니다.
- 말 읽기 능력의 신장을 위해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말 읽기 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말 읽기 교육 효과를 높이는 예

- 자기소개
- 자녀의 수준에 맞는 책
- 친숙하면서도 간단한 지시, 명령, 인사말
- 반복적인 대화문을 포함한 말.
(예: 마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학교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

말소리 형성에 관련된 대부분의 근육운동은 입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리와 철자가 다르지만, 입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므로 말 읽기만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구어 속도는 빠릅니다. 따라서 눈으로 인식하는 말소리는 필요 정보를 빠짐없이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뒤에 있는 음성에 따라 입 모양은 변하기 때문에 말 읽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발음할 때는 조음기관의 운동과 입 모양, 입을 벌리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입 모양을 보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 옵니다. 또한,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할 때, 조명상태가 좋지 않거나 입이 보이지 않는 등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정보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말 읽기 교육 내용은 음, 음절, 단어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청각장애 자녀의 흥미와 관심이 더 많고 실제의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단한 문장, 주제,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

말하기 지원



💬 청각장애 자녀가 어릴 때부터 청각보장구를 착용하고 청능훈련을 통해 말하기를 배웠어도, 청력 손상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언어 재활서비스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1. 청각장애 자녀의 말하기 특성

선천성 난청을 보이는 우리 자녀가 지금처럼 교육받는다면 어떤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난청의 소견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청기도 신경 써서 구매하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조금씩 청력이 떨어 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말은 구사하지만,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녀가 다른 사람과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자녀가 크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청인과 소통이 원활할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가능합니다.

청력손실이 심한 청각장애 자녀의 발성 오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언어훈련은 되도록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보다 명료한 발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말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듣지 못해서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각 또는 촉각적 단서를 부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말소리 훈련은 의미 어휘를 사용하고, 언어훈련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자녀가 습득해야 할 단어들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구어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청력손실 정도가 심할수록 단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습득한 단어를 활용한 문장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전반적인 언어 표현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 자녀는 낱말을 문장으로 만드는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나 동사와 같은 내용어는 과다하게 사용하는 반면, 동사나 형용사, 부사와 같은 기능어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형화된 구문 구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말 특징은 음성의 질 문제(낮은 공명), 느린 말 속도, 낮은 호흡 조절, 리듬상의 문제, 부정확하거나 불안정한 음도, 강도 조절상의 문제, 과도한 후두 긴장을 동반합니다. 경도나 중도 청력 손실을 가진 자녀의 말 특징은 말의 분절적인 면과 초분절적인 면에 이상을 보입니다.

2. 말하기 지원 방법

① 호흡 지도

문장을 말하면서 자주 숨을 쉬지 않게 폐활량이나 호흡량을 늘려주는 활동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리 자녀는 말할 때 숨을 너무 자주 쉬고 한꺼번에 다 뱉어내는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한 단어 말할 때 모든 호흡을 다 뱉어서 가끔 자녀가 어지러울까 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문장을 말하면서 자주 숨을 쉬지 않게 폐활량이나 호흡량을 늘려주는 활동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휴식 시에 쉬는 호흡과 말할 때 사용하는 호흡의 양은 다릅니다.

보통 휴식 시에는 들이쉬는 공기량과 내뿜는 공기량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말할 때는 1회 들숨으로 약 6배 이상 길게 내쉬면서 말을 합니다. 호흡훈련에서는 날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 및 촉각을 활용하여 날숨을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때 호흡훈련은 반드시 음성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호흡량을 늘려주는 여러 활동의 예

- 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깃털을 코 밑이나 아랫입술에 갖다 대어서 부드럽게 호흡을 하게 하여 들숨이나 날숨을 잘 이해하도록 복식호흡을 유도합니다.



② 화살 불기

폐활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두꺼운 종이를 둘둘 말아서 직경이 1cm 정도 되는 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로 6, 세로 7cm가량의 종이를 붙처럼 만들게 하여 연필형 통속에 넣어 보게 합니다. 이때는 멀리까지 불게끔 유도해 주면 좋습니다.



③ 비닐 풍선

비닐 풍선을 작은 것에서 시행하여 익숙해지면 차차 큰 것을 사용하여 불기를 합니다. 자녀가 불기를 잘 못 할 때에는 빨대를 사용하여 풍선 끝에 묶어서 불게 하고, 풍선을 입 가까이 갖다 대어 발생 시에 소리의 진동을 느낄 수 있게 낄숨, 장단의 강약에 변화를 줍니다.



④ 비눗방울 불기

비눗방울 불기는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짧은 낄숨으로 인해 비눗방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눗물에 빨대를 대서 거품을 만들어 낄숨의 정도를 알게 합니다.



⑤ 공 모양의 호루라기 불기

급하고 강한 낄숨을 하면 공이 붕붕 뜨지 않고 떨어집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불면 공은 공중에 뜬 상태로 자녀의 낄숨을 약하고 길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⑥ 종잇조각 이용하기

얇은 종잇조각을 폭이 1cm, 길이가 다르게 2cm 여러 장, 6cm 한 장 정도 차이 나게 만들어 준비합니다. 작은 종잇조각은 비강에 가까이 갖다 대어 들숨 시 비강에 불게 하고, 낄숨 시에는 입으로 하여 큰 종잇조각이 날리게 합니다.



⑦ 모음 구형 문자카드 지적하기

/아/, /에/, /이/, /오/, /우/의 여러 가지 음을 발화한 후 맞는 모음카드를 지적하게 합니다. 호흡의 강약 연습으로 소리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⑧ 고무풍선 이용하기

고무풍선을 불어 입구 쪽을 묶고 양손에 쥐게 합니다. 풍선을 입에 가까이 대서 모음을 한 음절 또는 2, 3음절씩 연습 시킵니다. 음을 축지시키고, 소리의 크기, 길이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2 말하기 지도

가정에서 말하기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언어치료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지도를 해주면 말하기를 잘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 말하기를 지도하는 방법이 있나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지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발성 오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가정과 연계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의 경우 언어훈련은 생활 속에서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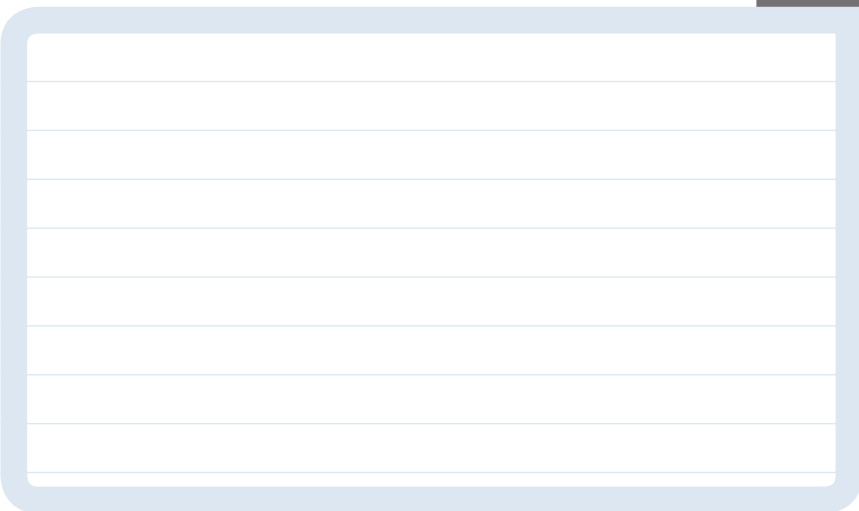
말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말소리 훈련은 의미 있는 어휘를 사용하며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하기 지도의 목표는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습득해야 할 단어들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말하기 지도 예시

- ① "듣자!"라고 말하고 자극을 반복합니다.
- ② 분절을 알려줍니다. (사자는 '사-자'로 나눕니다.)
- ③ 모델/모방을 이용합니다.
- ④ 청각적 강조를 사용합니다. (강세)
- ⑤ 귓속말을 제시합니다. (속삭임)

- ⑥ 대치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게 '사자'니? '사과'니?)
- ⑦ 잘못된 모델을 제시합니다. (나는 사과를 원한다.)
- ⑧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말했니?)
- ⑨ 말로 지시를 제시합니다.
- ⑩ 촉각적 단서(tactile cue)를 제시합니다.
- ⑪ 시각적 단서(visual cue)를 제시합니다.

NOTE



05

교과 지원



💬 기본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있는 자녀는 학습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듣기·말하기 지원

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듣기 말하기 교육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듣거나 말하는 활동이 늘었습니다. 꾸준히 언어치료를 받고 있지만, 집에서 자녀의 듣기·말하기에 도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녀가 질문과 대답에 따른 자연스러운 억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성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다감각적인 자극을 활용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말하기 지도는 청각을 통한 자기 조절의 가능성, 개인차를 고려한 지도의 형태, 조기 중재, 가족의 참여가 변수가 됩니다. 청각장애 자녀를 위한 말하기 지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절한 청각보장구를 사용하여 자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청·지각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켜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고·심도 청각장애 자녀는 집단 활동과 개별학습 지원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차를 염두에 둔 지원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나이나 학년에서 진행되는 과정보다 발달과정 중 가장 자주 사용하고 생활에 필요한 효과성이 높은 단계부터 먼저 접근합니다. 학년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면 자녀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따라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자주 사용하고 생활에 필요한 단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청각장애 학생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건청 자녀에 비해 느리고 말과 언어 학습능력이 불완전해 보이지만, 반드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자녀의 말은 가족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2. 읽기 지원

① 읽기 선행기술

읽기를 위해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에 앞두고 있는데, 학습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읽기를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읽기를 가르치기 전에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나요?



읽기 선행기술에는 ‘인쇄물 인식(print awareness), 자모 지식, 음운 인식, 구어를 통한 듣기 이해’가 있습니다.

읽기 지원 이전에 습득해야 할 선수 기술이 있습니다. 이는 초기 읽기 및 쓰기 행동(예, 그림책 페이지 넘기기, 낙서하기 등)을 말하며,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읽기 및 쓰기 능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읽기 선수 기술은 향후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쇄물 인식, 자모 지식, 음운 인식 및 듣기 이해’를 포함합니다.

인쇄물 인식(print awareness)은 문자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호자는 인쇄물 인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책을 자주 읽어 주고, 인쇄물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구성합니다. 구어와 문어 간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책을 읽으면서 인쇄물 인식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모 지식은 자모의 이름에 대한 지식, 자모의 소리에 대한 지식,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모 지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모 관련 책이나 자모 블록 등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가르치고, 자모 소리를 합쳐서 글자를 발음하는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음운 인식은 말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으로, 말소리를 합성, 분절,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호자는 음운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음운 인식 활동을 제공하고, 음소 분절과 음소 합성 활동을 제공하고 구체물을 조작하면서 음운 인식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낱자-소리 대응 관계를 결합한 음운 인식 활동을 제공합니다.

구어를 통한 **듣기 이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책을 자주 읽어주고, 책을 읽는 동안 글의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등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읽기 지원의 영역은 ‘읽기 선수 기술, 단어 인지, 읽기 유창성, 어휘, 읽기 이해’로 나뉩니다. 읽기 선수 기술에는 프린트 인식, 자모 지식, 음운 인식, 구어를 통한 듣기 이해가 포함됩니다. 단어 인지는 단어의 발음을 파악하여 읽고,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기 유창성은 읽기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적절한 표현력을 갖고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휘는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을 지칭하며, 어휘 지식에는 양적 어휘 지식과 질적 어휘 지식이 속합니다. 읽기 이해는 자신의 선행지식을 글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합치면서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읽기 지도 영역이 서로 맞물려 잘 돌아갈 때 읽기 지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읽기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2 읽기 지원

중학생 자녀의 효과적인 읽기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아직도 더듬더듬 읽습니다. 그래도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 좋아 되도록 책으로 교과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중등부 자녀의 읽기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쓰기 활동을 병행한 읽기 지도와 가능한 많은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도에서 심도까지의 청각장애 자녀들의 교육성취는 읽기와 언어기술에서 건청 청력의 자녀보다 떨어집니다. 문해 능력이 부족하면 고용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듣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글쓰기 활동을 병행한 책읽기 지도와 가능한 많은 문해 경험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글쓰기 활동과 병행한 읽기 지도

TIP

과제	목적	지도의 예
인쇄물 인식 능력	자녀가 책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있는지를 평가	책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같은 상징 짝짓기	자녀가 상징과 기호를 짝지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내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을 집어 보세요.
낱글자 인식 및 구별 능력	글자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이거는 글자예요? 아니예요? 내가 말하는 글자를 짝여 보세요.
낱말 인식 능력	자녀가 의미어(낱말)와 무의미어(비낱말)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내가 말하는 낱말을 지적해 보세요.
낱글자 이름대기 능력	자녀가 낱글자의 이름을 아는지 평가한다.	이 글자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
무의미 낱말 읽기 능력	자녀가 음운규칙을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나구’ 글자를 보여주며) 이 이상한 말을 읽어 보세요.

과제	목적	지도의 예
창안적 쓰기능력	표준적 글자 쓰기(예: 맞춤법)를 습득하기 이전에 자녀 나름대로 음소(phoneme)와 글자소(grapheme)를 대응시켜 만들어 내는 글자 쓰기를 평가한다.	내가 말 하는 말 을 써보 세 요. '꽃'('꽃'뿐 아니라, '꽃, 꼴, 꼴, 꿩'모두 맞게 평가)
분절 능력	말을 낱말, 음절, 음소 등의 요소로 분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학교'를 '학', '교'로 말하는 것처럼 하면 '아빠'는 어떻게 나눌 수 있지? '아', '빠'라고 하면 되죠.
합성 능력	개별 음소를 합하여 음절이나 낱말로 합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ㄱ'와 'ㅏ'를 합쳐서 말해 보세요.
두운 및 각운 인식 능력	자녀가 같은 자음소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2낱말을 인식하는지를 평가한다.	다음 중에서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끝나는) 말을 찾아보세요.
생략 능력	자녀가 낱말에서 특정 음소를 빼고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창문'에서 'ㄴ'을 빼고 말해 보세요.
읽기에 대한 동기	다양한 읽기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참여하지 않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함' 선상에서 체크해 주세요.
가정의 읽기 환경	가정에서의 읽기 접근성과 참여도와 같은 가정의 읽기 환경을 보호자 설문을 통해 평가한다.	1주일에 며칠 정도 책을 읽어 주 나요?

3. 쓰기 지원

철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는 유창하게 읽는 편이라 큰 걱정은 없는데 유독 철자를 틀리게 쓸 때가 많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음어가 늘어나면서 가끔 문장을 잘못 해석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게 묻고는 합니다. 자녀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한글 철자 오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표기 처리의 문제로 인합니다. 이는 한글의 음운변동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경우, 빈번한 음운변동으로 인해 청각장애 자녀들은 쓰기에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기 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음운변동 규칙별로 단어를 묶어서 소개’하고, ‘같은 음운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단어끼리 분류하는 활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었어. 먹었다. 갔어. 갔다.’ 등 단어를 주고 ‘/ㅁ/’로 바뀌는 단어를 고르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에 1개의 음운변동 규칙을 비교하여 분류하는 활동으로 시작하여, 자녀의 반응에 따라 음운변동 규칙의 수를 늘리도록 합니다. 또한, 스스로 평가를 통하여 자녀가 잘 모르는 음운변동 규칙을 파악한 뒤 자녀 특성에 맞게 교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자녀에게 쓰기 학습은 중요한 언어 지도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는 언어 발달의 최후단계에서 나타나는 언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기는 언어 발달의 최종적 단계에 완성되거나 발달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최후에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쓰기 특징

청각장애 자녀의 쓰기는 연령증가에 따른 어휘의 발달 경향을 보이지만, 청인 자녀에 비해 지체되어 있고, 문장구성도 나이에 따라 발달하지만, 기본적 단문 구조를 벗어나 문장의 구성에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어휘, 문장 면의 곤란이 시각적 순서나 감정 표현 등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표현

청각장애 자녀의 쓰기는 중심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행동의 결과만을 나열하며, 배경 묘사, 감정 표현, 설명적 기술이 부족합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고의 깊이, 문장구성, 감정 표현력이 뒤떨어지고, 소재를 단지 나열하는 문장이 많으며, 표현력에 있어서 개인차가 큼니다.

② 어휘

어휘 수는 학년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확성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형용사나 부사와 같이 추상적인 단어의 사용은 명사나 동사에 비해 어렵습니다.

③ 통사

청각장애 자녀는 단문을 많이 사용하며, 중문과 복문의 사용 빈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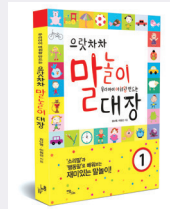
참고자료

으랏차차 말놀이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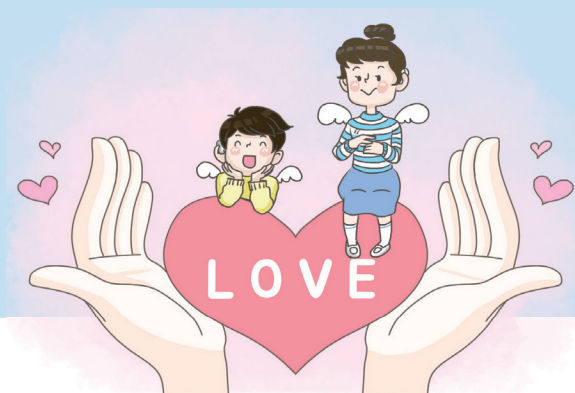
어휘 향상 학습지

김난영·이원선 쓰고 최수미 그림, 2014, 이담박스

TIP



EBS 문해력 교육 통합 서비스, 당신의 문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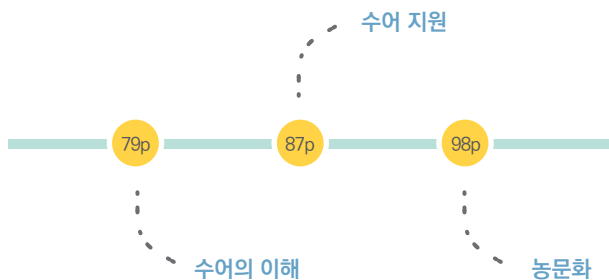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라는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들만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청각장애인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인 수어와 관련하여 양육하면서 느끼는 궁금증에 대해 풀어보고, 나아가 농문화를 바탕으로 청각장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와 방향에 대해 풀어갑니다.

p a r t

03

수어 지원



단 한 명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같은 학년 학생 전체가 수어를 배우는 대전 성남초등학교.

“처음엔 뭘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입 모양이나 몸짓으로 말했는데,
오늘 수어를 배우고 나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수어를 못 할 때는 혼자 외로운 느낌이 있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전교생이 수어 수업 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교우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한 명의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수어를 배우는 어린 학생들,
마음과 마음을 이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MBC 뉴스 2017.05.31.

01

수어의 이해



💬 청인이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청각장애인은 손짓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차이일 뿐, 수어도 의사소통 수단으로 독자적 언어형식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어를 이해하고 보호자로서 어떻게 수어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수어란?

수어와 구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어는 단순한 몸짓 아닌가요? 행동하는 범위가 커야 하고 주의를 끌 수도 있으니 구어에 집중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수어를 배워야 한다면 수어와 구어의 차이는 뭔가요?



구어는 음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고, 수어는 시각과 운동 능력을 이용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수어는 손짓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의사를 주고받는 의사 표현 방법입니다. 기존에 ‘수화’라고 말하던 것은 손으로 하는 대화라는 뜻으로 의사소통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 ‘수어’는 손으로 하는 언어로 하나의 언어로서 더 큰 의미를 나타냅니다. 수어는 신호가 이루어지는 위치, 손의 모양, 신호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신호의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되는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과 같은 훈련도 중요합니다.

구어는 청각 능력에 의하여 전달되는 언어방식이고, 수어는 시각과 운동 능력에 의해 전달되는 언어방식입니다. 둘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구어	수어
의미전달방법	청각능력과 말소리에 의해	시각과 운동 능력에 의해
의미의 차이	말소리 억양으로	표정과 손의 모양과 방향, 위치, 움직임에 따라
표현력	직접 모습 표현에는 한계	모습을 시각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 가능
특성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의미 전달	손의 움직임이나 위치 등을 공간이라는 3차원과 움직임으로 시간을 나타내어 4차원적인 특성도 있음

오전 (왼쪽으로)
오후 (오른쪽으로)

손의 모양은 같으나
손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맛있다.
맛있니? (눈은 표정으로)

손의 모양은 같으나
표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출처: 「보이는 언어, 한국수어로 통하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국어원

수어는 농식 수어와 한국어 대응 수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각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방법 면에서 다른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농식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문법 같은 인위적인 형식이 아니라, 자연적인 몸짓으로 표현되는 수어를 말합니다. 농식 수어가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에서 상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자체로도 독특한 어순과 문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식 수어를 수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누가 말했니”라는 것은 수어로 ‘말+누구’와 같이 축약적이고 간결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농식 수어는 비유가 많은데, “밥이 상해서 못 먹겠다.”라는 수어를 ‘상하다+밥+목자르다’로 표현합니다.

반면, **한국어 대응 수어**는 농식 수어로 전달하기 어려운 의미나 개념 등을 전달하기 위해 문법에 맞게 인위적으로 고안된 수어입니다. 한국어 대응 수어는 농식 수어의 어휘를 사용하긴 하지만 구어의 어순에 따라 재배열하며, 지문자와 조사나 어미같은 문법 형태를 사용합니다. “누가 말했니”를 한국어 대응 수

어로 나타내면 ‘누가+말하다+끝+묻다’로 표현하여 농식 수어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국어 대응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이 청인들이 쓰는 글을 읽을 수 있고 지식을 전달받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해석하고 학교 교육에 따라가기에 충분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특성 때문에 구어나 한국어를 익히고 난 후에 수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보통 한국어 대응 수어를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경우는 간결성이나 시간 절약 등의 이유로 농식 수어를 더 익숙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어의 사용

구어를 잘하는데도 꼭 자녀가 수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하나요?

우리 자녀는 세세한 말을 다 듣지는 못하지만,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구어를 사용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청각장애인이라고 꼭 수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할까요?



꼭 수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수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수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나 과학의 발달로 보청기, 인공와우 등의 청각보장구로 청각장애인들은 여러 소리를 듣고 구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수단, 즉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한국 수화언어법에서는 농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수어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 농인과의 사이에서 바른

이해와 교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수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수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단어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할 경우, 특히 글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수어를 통해 명확하게 의미를 서로 전달할 수 있고, 글보다는 바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소통에 더 효과적입니다.

기존에 ‘수화’라는 용어를 최근에는 ‘수어’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가 대화의 수단뿐만 아니라 언어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험

초등학생 때 수어 사용을 금지당하고 구어 습득에만 초점을 두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구어에 대한 불확신이 커져 상대방이 정말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내가 상대방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어를 사용하자마자 그런 불확신이 확신으로 바뀌어 수어가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 중에서

3. 주변인들의 수어 사용

청각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수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집에서는 구어나 필담 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어를 사용한다고 가정에서도 수어를 사용해야 하며, 가족들이 모두 수어를 익혀야 하나요?



의사소통 하나만을 고집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자녀가 수어와 구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들도 수어를 익히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수어가 청각장애 자녀의 의사소통 수단인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자녀가 수어를 사용하면서 손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구어와 함께 수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구어만을 사용하라고 하게 되면 친구들과 수어로 소통할 때 자연스럽게 수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잃게 되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수어와 구어를 사용해서 가족들과 의사소통 하도록 하고, 가족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고 수어를 배워 구어와 함께 사용하면 자녀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수어에 대해 배우기 어렵다고 해서 자녀의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로만 말하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의 수어에 대한 넓은 이해가 자녀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 가족들이 수어를 배운다면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서로를 아껴주는 긍정적인 가족애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어 교육은 각 지역 ‘수어통역센터, 수어 교육원, 농인 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청각장애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소통하는 방법들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수어 관련 서비스

TIP

한국농아방송

- 수어를 방송언어로 하여 농인과 청각장애인이 방송의 주 소비자이자 프로그램의 생산자로서 주체적인 참여를 하는 방송입니다.
- 프로그램: 수어 뉴스, 수어로 읽어주는 동화, 수어로 여는 세상, 우리 동네 이슈 등
- 카페: cafe.daum.net/deafon
- 페이스북: m.facebook.com/www.idbn.or.kr
- 문의: 한국농아인협회(www.deafkorea.com)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영상(수화)상담'

- 129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방법: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www.128.go.kr)의 영상(수어)상담 채팅상담 배너 클릭→실명인증→정보입력 및 접수→상담원 연결
- 129 모바일 상담 서비스 다운로드 앱 설치→채팅 및 화상상담 서비스 이용
- 이용시간: 주중 9:00~18:00

107 손말 이음센터

- 청각언어장애인이 다양한 기기, 서비스(컴퓨터, 휴대전화, 영상전화기, 네이트온)을 활용하여청인과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시간 전화 중계 서비스
- 지원내용: 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발화청취 가능자용 서비스, 비장애인용 통신중계 서비스, 원격수어 통역서비스 등
- 이용시간: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
- 문의: 전화107, 홈페이지(www.relaycall.or.kr)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 수어상담

- 청각언어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상담서비스, 3자 통역서비스를 통해 민원, 일상생활, 다양한 정부시책 등의 상담을 돕습니다.
- 지원내용: 전국 관공서 안내, 세무, 사회복지, 교통, 불편, 통계 등 일반생활 및 정부 민원, 다양한 정부 시책 등 문의 시 답변 제공
- 문의: 홈페이지(www.110.go.kr) - 수어상담(청각장애인용)

[상담채널별 수어상담 이용방법]

- ① 모바일 : 110홈페이지 접속 → 수어상담 → 민원인의 핸드폰번호 기입 후 상담신청 → 상담신청
※ 크롬앱 또는 사파리앱 이용, 데이터 이용료 발생
- ② PC : 크롬을 통해 110홈페이지 접속 → 수어상담 → 민원인의 핸드폰번호 기입 후 상담신청 → 상담신청
※ 화상카메라 연결 필수
- ③ 씨토크 영상전화기 : 070-7451-9012,3,5 로 전화
※ 씨토크회선 이용자 무료, 안드로이드와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됨

- 기관수어통역(공공기관용)

[기관수어통역 이용방법]

PC : 크롬을 통해 110홈페이지 접속 → 수어상담 → "기관담당자 연락처 기입" 후 상담신청
※ 화상카메라 및 헤드셋 연결 필수

※ 기관수어통역이란?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주는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 민원처리를 진행합니다. 국민콜110은 기관담당자, 청각장애인, 110수어상담사 간의 3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시간 : 평일, 설·추석 09:00~18:00

※ 평일 18:00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는 107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수어 지원



☞ 언어를 접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에 청각장애 자녀를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방치해 두면 그 자녀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입학해도 국어 습득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자녀에게 언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 수어가 방해된다고 수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면 청각장애 자녀들은 외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따라 성장하게 하려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는 자녀가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수어 교육을 할지 말지는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보호자는 예상치 못한 자녀의 청각장애에 당황하여 어떤 교육적 처치를 해야 할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고 수어를 가르칠지, 구어를 가르칠지 고민하다가 중요한 시기에 발달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데, 이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성인이 되고 난 후 사회생활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한국수어

한국어 문장에 수어 단어만 바꾸면 한국수어가 되는 게 아닌가요?

수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단어만 바꾸면 소통이 되지 않나요? 외국어처럼 따로 배워야 할까요?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 체계가 다르듯이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문법도 다릅니다.



출처: 「보이는 언어, 한국수어로 통하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국어원

한국어 단어를 수어 단어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수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단어 문법 체계가 다른 또 하나의 언어로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를 단순히 손짓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한국어와 다른 독립된 구조와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입니다. 한국어 문장에 수어 단어를 단순히 나열한다면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짓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의사소통으로써 의미 전달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의미를 주고받으려면 그 언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어와 다른 한국수어의 특성을 알아야 수어를 익힐 때 더 그 의미의 전달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특성 비교

한국어 특성	예
서술어가 문장 끝에 놓인다. (주어-목적어-서술어)	친구와 영화를 보았다.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놓인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한다.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들은 뒤에 덧붙는다.	‘읽다’: 읽-어, 읽-니. 읽-으렴, 읽-지만
의미 범위가 큰 쪽이 앞에 놓이는 어순을 취한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어의 어순은 자유로운 편이다.	보아라. 푸른 들판을
구체적 명시 없이 생략할 수 있다.	(아빠를 보며)신문 보셔.
연결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를 만났다. 밥을 먹었다.
사회관계에 따른 경칭을 사용한다.	여자, 딸, 엄마, 아내, 이모, 친구

VS

한국수어 특성	예
공간을 이용하여 주동문을 구사한다.	자녀가 엄마에게 업히다. 엄마가 자녀를 업다. (위치로 ‘엄마’와 ‘자녀’를 나타낸다.)
비수지 기호(표정, 머리 방향, 시선 등)가 조사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부사, 감정적인 표현, 의문문, 조건문, 부정문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다+(표정)=가니?
역할 전환을 이용한다.	위치를 바꿔가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어순에 제약이 있다.	나+너+좋다=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나+좋다≠너를 나는 좋아한다.
시간 표현에 서술어가 변하지 않고 시간 부사를 사용한다.	어제+나+집+가다=어제 나는 집에 갔다. 10년+과거+적(경험)+놀다+재미있다=10년 전에 재미있게 놀았다.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표현보다는 서술적인 표현을 한다.	철수+밥+먹다+끝+~후+공부하다+열심히=밥을 먹은 철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한국수어 특성	예
부정문에 쓰는 어휘가 다양하며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나+여자+아니다=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집+가다+안 하다=나는 집에 안 간다. 비+오다+없다=비가 안 온다. 숙제+아직=숙제 안 했어요. 나+수영+못하다=나는 수영 못해요.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주어와 서술의 위치가 가깝게 된다.	철수+밥+먹다+(ㄹ떡임)+영희+빵+먹다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빵을 먹었다.
동음이의어의 다른 쓰임	소금이 짜다→소금+(혀에 맛을 보며 찐 표정을 지음) 걸레를 짜다→걸레+비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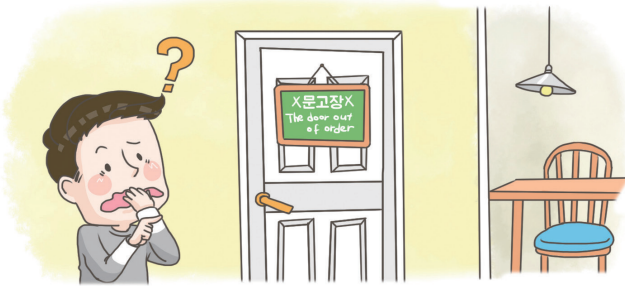
2. 한글 문법과 수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청각장애 자녀도 한글로 글을 써서 소통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가족이 수어를 사용할 수 없기도 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녀와 소통을 할 때 필담으로 소통할 수 있지 않나요?



한글 문법이 서툰 청각장애인은 한글로 된 지시문을 외국어처럼 느낍니다.



출처: 「보이는 언어, 한국수어로 통하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국어원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있으므로 한글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어 단어와 문법이 익숙하지 않은 청각장애인들은 외국어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한국어 단어와 문법이 익숙하지 않은 농인이 입 모양만 보고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어에는 동음이의어도 많이 있고,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내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글보다는 수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글 특성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가, 은, 는’ 같은 조사를 헛갈려 합니다.

②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단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배경묘사나 감정 표현이 서툴 때가 많습니다.

- [영희는 전교생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영희는 모든 사람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전교생’이라는 단어를 몰라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③ 어순 표기가 한국어와 다릅니다.

- 수어의 어순은 한국어와 달리 서술어와 주어의 위치나 부정어 등의 위치가 다릅니다.

-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자녀] → **[활기찬 자녀 호기심이 많다.]**

3. 수어 지도

수어를 자녀에게 지도할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에게 구어만 강조해왔는데, 수어를 병행하면 구어습득과 언어발달에 좋다고 들어서 수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려고 해요. 수어를 처음 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수어를 익히게 할 수 있을까요?



수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손동작과 위치, 방향 등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표정을 전달하는 언어에 맞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언어는 보편적인 특성으로 임의성, 분절성, 창조성, 역사성, 전위성, 문화적 전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어는 이런 언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언어의 자격이 있는 동시에 움직임을 통해 전달하고,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는 다른 점이 있어 수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어를 지도하기 전에 우선 수어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 수어의 기본적인 특성

- ① 자의성으로, 기호를 통해 의미를 예측할 수 없는 임의성이 있습니다. 시각언어인 수어도 음성언어보다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많지만, 추상적인 개념들은 임의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세계에 여러 언어가 있듯이 수어도 나라마다 달라 같은 단어라도 다른 수어를 사용합니다.
- ② 분리성으로, 복잡한 메시지를 작게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단어를 형태소나 음소로 분리하는 것과 같이 수어도 수어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③ 창조성으로, 어휘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수어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결혼’과 ‘남자’를 합한 단어입니다.
- ④ 역사성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변하듯이 수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 ⑤ 전위성으로, 과거와 미래 등의 지금과 다른 시점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성으로 수어에서도 과거와 미래를 모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⑥ 문화적 전달로,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어에 노출되면 그 문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어가 가지는 시각언어로의 특성

- ① 공간과 동시성을 가집니다. 수어는 양손을 통해 표현을 하고 공간과 몸을 운동장으로 하는 시각과 운동 체계입니다. 수어는 공간에 단어를 배치하여 대명사처럼 사용합니다. 또한, 수어는 ‘자동차’라는 주어를 모양으로 나타내고, ‘가다’라는 동작을 표현함으로써 주어와 동사를 동시에 표현하는 동시성을 가집니다.
- ② 표정, 머리 방향, 몸의 방향, 몸의 움직임, 시선 등 손 이외의 구성요소인 비수지 기호가 중요합니다. 비수지 기호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문법적

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 ③ 가역성으로 손의 움직임을 반대로 하여 의미를 반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수어 익힐 때 고려사항

수어를 익힐 때는 수어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수어로 소통할 때 메시지 전달에 오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어를 익힐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인사말

1. 수어 동작의 범위는 보통 가슴 앞에서 양어깨를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큰 동작과 작은 동작으로 동작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2. 한글 지화 및 지문자를 쓸 경우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며 한 음절씩 정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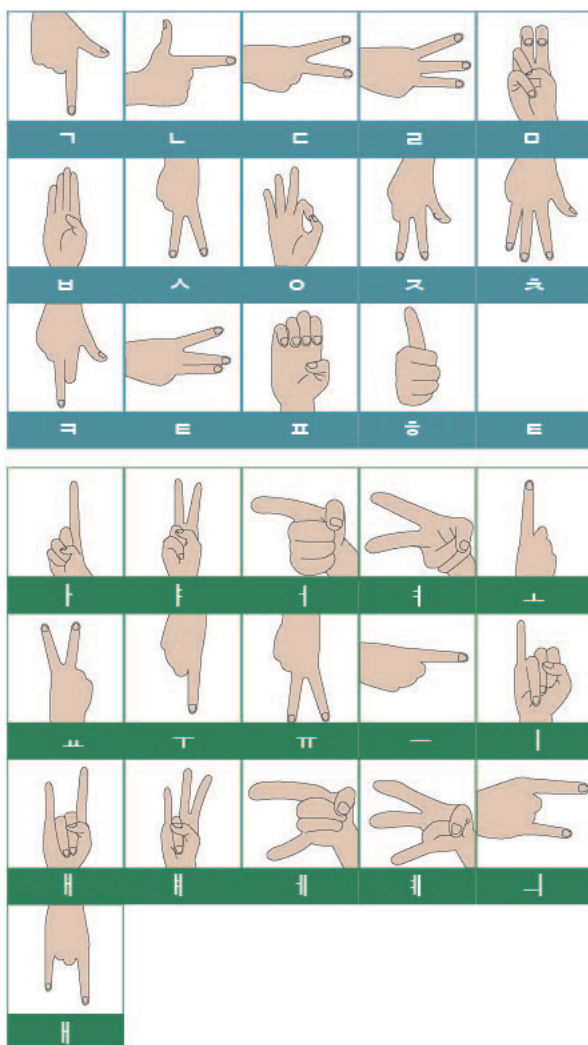
쓰고, 글자가 겹치지 않도록 손의 위치와 모양, 방향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3. 수어는 시각적인 언어라서 수어로 처음 대화할 때는 손동작을 보게 되지만, 서로의 표현에 대해 점차 익숙해지면 수어가 아닌 표정을 보고 대화하게 되므로 얼굴 표정을 잘 구사해야 합니다.
4. 수어는 주로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형용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표현의 단순한 점을 표정으로 보완시켜야 합니다. 또한, 존대어가 따로 없어, 예를 들면 “당신은 집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을 경우, “당신은 집이 어디?”라고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웃어른과 대화를 할 때는 몸의 자세라든가 표정을 공손하게 하여 존대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수어는 대부분 조사가 생략되어 있으며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등의 품사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건강하다=건강한’으로 사용합니다. 과거형인 경우 ‘했다’, ‘갔다’ 등은 ‘끝’이라는 수어를 함께 사용하면 과거형 표현이 됩니다. 또한,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

야 합니다.

6. 단어나 문장에 알맞은 수어 표현이 없으면 지화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수어로의 역합니다.
7. 수어는 지역이나 나라, 사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8. 수어는 같은 뜻이라도 상황에 따라 동작과 모양이 조금씩 달리 사용되기도 하고 손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 반대의 뜻이 되기도 하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사랑의 수화교실



수어 학습 사이트

TIP

- **한국수어의 이해**: cafe.daum.net/kslclinic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sldict.korean.go.kr
- **함께 배우는 수어**: home.ebs.co.kr/hand/index.html
- **대구 농아인협회 영상도서관**: book.daegu-deaf.or.kr
- **한국농아방송 iDBN**: www.idbn.tv
- **사랑의 수어교실(전북교육포털)**: suhwa.jbedu.kr

수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명칭	내용	애플리케이션
초보자를 위한 수화	수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알파벳과 숫자를 소개합니다.	
수화 배우기	수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ASL 아메리칸 수화	미국의 영어 알파벳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든 것으로 수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화번역 도우미	이해가 잘되지 않는 단어나 문장을 수어로 표현해 줍니다. 수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수어 단어의 의미에 대응하는 아바타의 비수지 신호 및 표정을 구현해 줍니다.	
열린 수화	한국수어사전, 지화와 수어 검색, 수화통역센터 정보제공, 배리어프리 영화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명칭	내용	애플리케이션
손소리 수화 키보드	수어의 지화를 이용한 표현방법을 익힐 수 있는 학습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한글수화 기초 낱말학습	지문자, 낱말, 문장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 자신의 수준에 맞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화단어게임	누구나 손쉽게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수어 단어 게임입니다.	
게임으로 배우는 터치 수화	간단한 터치 방식의 게임을 통해 수어를 배울 수 있는 앱입니다.	
손말새랑	수화 동작을 3D로 표현하고 수화 동작의 빠르기를 조절할 수 있어 쉽게 수어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한국수어사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일상어와 전문어를 검색하여 해당 단어의 수어 표현을 동영상상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NOTE

청각장애인의 수어에 대한 경험

나는 청각장애인이지만, 구어를 사용하며 수어를 할 줄 모른다. 사실 수어도 대학에 와서야 처음 접했다. 그전에 나 이외의 청각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릴 적부터 몇 명씩 만나본 적은 있다. 하지만 모두 구어를 사용했다. 물론, 여기에는 내 부모님이 청인이라는 것도 한몫했을 터이다. 내가 청각장애를 진단받은 것이 4살 무렵, 보청기를 착용한 것이 5살 무렵이다. 그리고 5살에야 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웠다.

부모님은 그냥 내가 말이 늦는 줄 알았다고 하셨다. 부모님은 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안 뒤, 한국의 특수학교 몇 곳을 방문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내가 굳이 수어를 배울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수어를 쓸 정도로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어를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구어를 쓰는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계가 존재한다. 청인과 동등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 완벽하게 청인처럼 듣고 말할 수 없다. 대화를 놓쳐서 계속 물어보게 되고, 발음이 새서 지적을 받는다. 내가 아무리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입술을 읽어도, 나는 결국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일본여행에서 만난 한 청각장애인이 나에게 물었다. “부모님께서 수어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원망합니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리에 맴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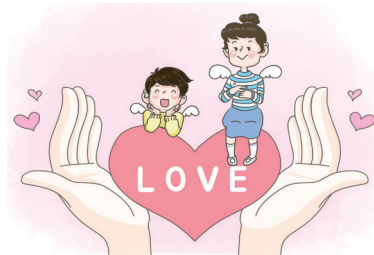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수어와 필담을 함께 배운다고 한다. 한국에서 수어 또는 구어를 선택해서 배우거나 둘 다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수어와 구어(필담 포함)는 문법 체계가 다르다. 아예 다른 언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수어와 필담을 함께 배우니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청각장애아동에게 언어를 지도하는 방법에서 '구어나, 수어나'보다 '구어도, 수어도'라는 관점을 취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일본 청각장애인에게는 내가 신기했을 것이다. '아니, 청각장애인인데 수어를 못 하다니?' 나는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수어'라는 훌륭한 청각장애인의 언어에서 배제된 사람이니까. 나는 아직도, '데프 프라이드(Deaf Pride: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나에게 청각장애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나를 더 열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출처: Slow News 2016.07.27. 기사

03

농문화



💬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문화를 농문화라고 하는데, 농문화는 농인들에 의해 형성된 농인 고유의 문화입니다. 농문화는 수어를 함께 사용하는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으로 인해 농 정체감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인들은 자신이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농인들은 시각에 기초한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농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의 문화를 알고 접근해가는 것이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1. 청각장애의 정체성

자녀가 청각장애로 다른 장애학생이나 청인학생과도 소통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는 다른 장애학생들과도 어울리기 어려워하고 청인학생들과도 달라 어디에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청각장애를 이해하고 같은 고민을 가진 청각장애 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청각장애 자녀들은 대부분 청인 보호자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청인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오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여 고민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 자녀의 청각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여 서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함께 어울리는 데 공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생활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청각장애 친구가 있다면 자녀는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청소년기의 청각장애 자녀들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친구들과의 어울림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청인의 문화와 농인의 문화를 모두 존중해 주고, 두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할 수 있게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인학생들과의 만남만 강조하기보다는 사춘기 청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은 장애를 가진 또래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상담과 함께 같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나 성인들을 소개하여 이 정서적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바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청인이며 언어습득 이전에 청각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농인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호자가 수어에 능숙하지 않고 많은 노력을 기울

이지 않으면 자녀는 의사소통의 결여로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지체되거나 말을 배우는 것이 어렵고, 어린 시절에 많은 좌절감을 경험하여 적극성과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구어 교육만 받아온 청각장애인은 수어와 농인사회를 처음 접하게 되면 삶의 개선을 느끼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어를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배워 자신의 정체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 청각장애 정체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청각장애 자녀도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민과는 다르게 청각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같은 청각장애를 가진 집단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청각장애 정체성(농 정체성)'입니다. 청각장애 정체성은 청각장애인을 사회문화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는 청각장애인 집단에 대해 갖는 일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정체성은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청각장애 자녀들에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① 청인 중심의 정체성

- '들을 수 있는 청인들이 부럽다', '청각장애인인 것이 부끄럽다'와 같이 청각장애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 청각장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② 주변 정체성

-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난 청각장애일까? 청인일까?', '수어도 구어도 다 어렵다'와 같이 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일로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경우입니다.
- 자녀들이 우울감이나 폭발 행동 등의 감정기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정확하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③ 몰입 정체성

- ‘청각장애만 최고다’, ‘청각장애인들하고만 놀 거다’, ‘일반 교사나 보호자는 다 나쁘다’와 같이 과도하게 청각장애에 대해서 몰입하여 생겨나는 정체성입니다.
- 청인들과 어울릴 기회를 많이 얻음으로써 상호작용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④ 이중문화 정체성

-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청인과도 잘 지낸다’라는 것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과의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두 개의 문화를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 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호자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 그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언어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실패의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서도 일반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겪게 되고, 학습에서도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청각장애 자녀에게 공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청각장애 자녀에게 보호자가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양육한다고 하지만, 자녀의 관점에서는 외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보호자는 자녀의 언어를 인정해 주고 학교에서의 일, 친구와의 일, 선생님의 일 등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청각장애 문화 이해하기

청각장애 자녀는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해야 하나요?

청각장애 관련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청각장애인들만의 문화가 있으므로 그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수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도하라고 하던데,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수어나, 구어나로 모국어를 결정하기보다는 자녀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수어와 구어를 모두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문화-이중언어 방법은 청각장애 중심의 교육, 사회, 문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수어나 구어나를 따지는 청인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어가 청각장애인들의 모국어이고, 나머지 국어가 제2의 언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방법은 수어를 모국어로 인정하여 어릴 때 수어를 접하게 하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제2외국어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수화’를 수화언어라는 의미의 하나의 언어로 인정한 ‘수어’라고 용어가 변경된 것입니다. 수어를 중심으로 하지만 구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 자녀의 요구에 따라서 수어와 구어 둘을 모두를 인정하고 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어는 8~12세에 배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중문화-이중언어 방법으로 본다면 학령기에 제2외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수어 사용에 관해서 물어 보았을 때 대부분 수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수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용하기에는 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수어를 통해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 사용하기 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어의 사용이 편하긴 하지만, 청인들과 생활하기 위해서는 구어나 필담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함께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만 익힌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읽는 독해력과 문법, 단어 등의 표현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구어만 배운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음성언어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수어와 구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문화 이해

1) 호칭

예전에는 청각장애인을 ‘귀머거리’라는 부정적인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청각장애인, 농아인, 농인, 난청인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듣기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용어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청각장애인 가운데 농인들은 자신들이 ‘농아인’ 또는 ‘농인’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2) 의사소통

• 대화할 때

-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얼굴을 계속 마주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 대화할 때는 잘 보이도록 밝은 조명이 있는 곳에서 대화를 합니다.
-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 시선을 분산하거나 방해하는 물건을 놓지 않습니다.
- 표정으로 감정을 읽거나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표정을 밝게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각장애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청인 가족끼리 속삭이며 대화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를 끌 경우

-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앞쪽에서 손짓을 합니다.



- 불을 켜다 켜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를 끕니다.



- 손을 흔들어서 보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 발로 바닥을 굴러서 진동을 통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 청각장애와 청인의 의사소통 차이점

- ① 소개할 때- 청각장애인은 이름보다는 생김새나 행동 등으로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보통 청각장애인들은 얼굴 이름을 만들어 부르거나 그 사람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② 피드백 주고받기- 청각장애인들은 자세히 설명해서 피드백 해야 하지만, 수어로 모두 표현하기에는 어려우므로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 ③ 사고 났을 때의 묘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고의 과정이나 그날 등 다른 부분을 함께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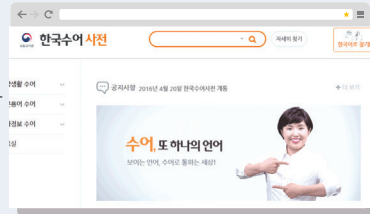


「장애공감 1318」 제10권 「수어가 꽃피는 마을」

이 시리즈는 모든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우리’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줍니다. 제10권은 프랑스 비두르르 강가의 작은 마을에 청각 장애인 푸르네 가족이 이사 온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풀루 할아버지를 통해 들려주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푸르네 가족이 마을 사람들과 차이와 편견을 뛰어넘어 ‘수어’로 따뜻한 우정을 나누며 소통해 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이해부족으로 일과 사랑을 잃고 자살한 청각장애인 ‘장’의 편지 19통을 담아냈습니다. 21세기 청각장애인 푸르네 가족의 이야기와 19세기 청각장애인 장의 편지가 번갈아 가며 등장하면서 ‘장애’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통합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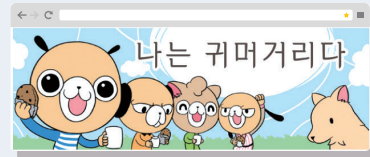
한국수어사전(sl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수어 이미지 및 동영상 등이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수어 단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

청각장애인 작가가 청각장애인으로서 사회에서 겪은 경험담을 그린 웹툰.
ht 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659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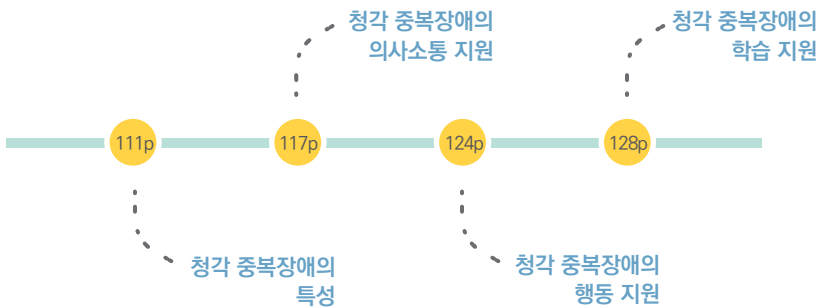


 중복장애는 청각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각 중복장애는 난청이나 농과 같은 청각장애를 가지면서 또 다른 장애를 함께 수반합니다. 이는 청각장애와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단순한 장애의 결합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독특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p a r t

04

청각 중복장애



“소리는 침묵으로 변하고 빛은 어둠으로 변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나의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곳, 그 세상에 어울리는 단 하나의 이름은 블랙이지요. 이런 어둠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블랙의 세계에서... 몇 분, 몇 시간, 며칠? 저는 이 어둠 속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제겐 모든 게 검습니다. 검은색은 어둠과 갑갑함뿐만이 아닌, 그건 성취의 색입니다, 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전 눈이 안 보이지만 꿈이 있었어요. 제가 졸업을 하는 것, 그것이 제일 바라는 제 꿈이었지요. 선생님은 제게 불가능이란 단어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지요. 다시 한 번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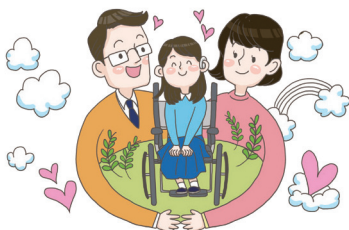
“세상의 알파벳은 A, B, C, D...로 시작하지만, 네 것은 B, L, A, C, K로 시작해. 어둠이 필사적으로 널 집어삼키려 할 거야. 하지만 넌 항상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해. 희망으로 가득한 너의 발걸음이 널 살아 있게 할 거야.”

“인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것처럼 할 일은 많은데 늘 시간이 부족해요.”

영화 『블랙』의 주인공 미셀과 사하이 선생님의 대사 중에서

01

청각 중복장애의 특성



☞ 일반적으로 중복장애는 제한된 구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며, 학습한 기술을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적인 신체적 이동의 어려움이 있어 주요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요구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1. 청각 중복장애의 일반적 특성

난청이 있는 자녀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청각 중복장애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만 착용하면 비에 자녀들과 같은 발달을 보일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 된 지금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간단한 지시를 따르거나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입니다. 주변에서 중복장애인것 같다고 하는데, 청각 중복장애의 일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각 중복장애란 청각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를 함께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청력손실 이외에도 수반되는 장애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입니다.

◆ 청각 중복장애란?

청각 중복장애는 청각장애가 있으며, 동시에 청각장애 이외의 한 가지 이상 다른장애가 있어 단일한 장애를 위한 지원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요구를 가진 장애를 말합니다.

청각 중복장애 아동은 자폐성장애나 지적장애의 특성과 유사하게 부족한 사회성과 미숙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당황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보호자에게 쫓아와 위안받으려 하는지, 보호자를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는지, 즉 자녀들은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의 애착을 보이는지, 보호자가 보이지 않거나 곁을 떠나면 분리불안을 보이는지, 보호자가 돌아오면 매달리는지, 특별한 친구가 있는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장난감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서 노는지 등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정서적 반응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으면 청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지적장애는 바른 반응을 나타내며, 자폐성장애는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의 경우 큰 소리 또는 낮은 주파수에만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남의 말을 흉내 내는 언어적인 모방이 뛰어난 데 비해 청각장애의 경우 언어적인 모방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청각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선택적 함묵증이 있는데, 이 경우 증상은 대상과 장소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와 다릅니다.

◆ 청각 중복장애의 일반적인 특성

청각 중복장애 자녀들은 청력손실 정도와 수반되는 장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음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 ① 듣기를 통한 언어습득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 ② 청각적 음성신호를 언어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 ③ 낮은 학업능력과 수업 참여가 어려울 정도의 모국어 능력을 보입니다.
- ④ 교과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실제 경험이 부족합니다.
- ⑤ 절대적으로 어휘가 부족합니다.

2. 청각 중복장애의 유형

청각 중복장애의 유형과 각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청력이 손실되어 진단평가를 받았더니 청각 중복장애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청각 중복장애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특성을 보이나요?



청각 중복장애의 유형은 수반되는 장애에 따라 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최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청각장애와 함께 수반된 장애로 인해 학습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형성, 일상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 중복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각·언어장애

-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수반하는 경우로 청각장애인의 대부분이 언어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① 청력의 손실로 말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 ② 음성언어의 습득과 발달의 지체를 보입니다.
 - ③ 언어 능력의 결핍으로 인지능력에 지체가 나타납니다.
 - ④ 조음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 ⑤ 사용하는 말수가 적습니다.
 - ⑥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구성 및 언어표현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청각·시각장애

- 시각과 청각 양쪽에 장애가 있는 경우 다감각장애 또는 이중감각장애라고도 부릅니다.
 - ① 장애 정도에 따라 농맹, 맹난청, 저시력농, 저시력난청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 ② 시각과 청각으로 얻는 원거리 감각상실로 인해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큼.

- ③ 시·청각의 감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정보처리, 이동상의 어려움, 극도의 고립상태, 욕구불만의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④ 농맹의 경우 중도의 지적장애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 ⑤ 농맹인은 시각장애로 인해 방향정위와 운동, 이동 기술에 있어서 발달이 지연됩니다.

◆ 청각·지적장애

- 청각장애와 더불어 지적기능과 개념화, 사회성, 적응기능의 두 가지 기능에 발달적 지체가 있는 지적장애를 수반하는 장애입니다.
- ① 청력 손실과 더불어 평균 이하의 일반적 지적능력 및 적응행동의 결함을 가집니다.
- ② 청력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인지적 손상으로 인해 조기 발견하여 중재하여 도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 있어서 심각한 발달지체를 보입니다.
- ③ 언어 발달지체로 인해 적응 행동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욕구불만, 짜증, 학습 곤란, 사회적 상호작용기술의 결여를 초래합니다.
- ④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활동이나 기억력이 지체됩니다.
- ⑤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낮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고립되거나 비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⑥ 학습 상황에서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이 높고 신체발달이 지연됩니다.

◆ 청각·정서장애

- 청각장애와 정서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입니다.
- ① 주변 환경에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② 위축된 행동이나 자기와 다른 사람의 학습 수행을 방해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 ③ 이러한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④ 학업 장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청각·자폐성장애

- 청각장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및 언어의 발달과 유지상의 문제점과 상동 행동,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상의 문제로 특징지어지는 자폐성장애를 수

반하는 중복장애입니다.

- ①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및 언어의 발달과 유지의 문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상의 문제를 보입니다.
- ② 언어획득의 지체, 독특한 단어사용, 타인과의 관계유지의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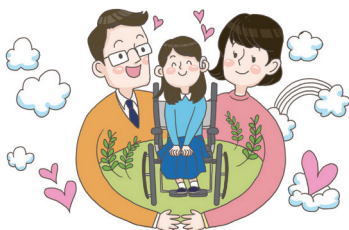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TIP

-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①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②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 ③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 ④ 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NOTE

02

청각 중복장애의
의사소통 지원

☞ 청각 중복장애도 중복장애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이 다양합니다. 청각 중복장애는 청각장애만 있는 경우보다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의 유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청각 중복장애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잔존청력이 있으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여 청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동반된 장애로 인해서 청각장애만을 가진 사람의 의사소통과는 다른 어려움을 가집니다. 중복된 장애의 특성을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1. 청각·지적 중복장애

지적능력이 낮은 청각장애 자녀에게 수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자녀가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의사소통을 하려면 수어를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적장애로 인해 기억력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청각장애 자녀에게는 지적장애의 교육방법처럼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수어는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고 시·지각기능과 운동기능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의사소통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청각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지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어렵습니다. 청각지적장애 자녀에게는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로

구성된 단어형 수어체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찾아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적장애의 경우 기억력이 부족하여 자주 잊기 때문에 사용해야 할 단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주거나 정확한 단어 사용의 모델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기억하여 필요한 단어를 수어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가리키도록 하거나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청각·뇌병변(지체) 중복장애

**청각장애가 있는데, 뇌병변이라서 수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가 뇌성마비와 청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여 수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보완 대체 의사소통기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Tip 120쪽 참고).

뇌병변을 가진 경우 뇌 손상에 의해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불규칙적인 반사 운동으로 손과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굴이 굳거나 세 부적인 움직임이 어려워 의사 표현을 할 때 어려움을 가집니다. 뇌병변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가진 경우는 특히 표정과 손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인 수어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잔존청력이 있는 경우는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통해 청력을 사용하여 음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존청력이 없는 경우는 음성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AAC)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는 그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등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뿐만 아니라 앱으로도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언어적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어휘를 선택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의 사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사용하여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3. 청각·시각 중복장애

자녀가 시각과 청각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시각과 청각장애가 모두 있습니다. 자녀에게 수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보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 같고, 듣지 못해서 구어로도 가르치기 어렵네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까요?



농맹을 가진 자녀들은 청각과 시각이 상호보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이나 시각 단일 장애와는 다른 접근을 해주어야 합니다.

맹을 함께 가진 청각장애 자녀들은 감각장애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왜곡된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감각 결손을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분	의사소통 방법
손문자	• 농맹인의 손바닥 등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어서 전달하는 방법 • 직접 손바닥에 적지 않을 경우 자녀의 손을 잡고 글자를 적게 하는 방법도 있음
수어	• 잔존시력이 있는 경우-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눈앞에서 수어 사용 • 잔존시력이 없는 경우- 수어의 움직임을 손으로 가볍게 만져 수어를 읽는 촉각 수어 사용
지문자	• 수어와 같은 방법으로 지문자를 나타낸 손을 만져 그 모양을 익히도록 함
필담	• 점자와 묵자로 구분됨 • 점자는 점자판이나 점자 타자기 등을 이용하여 점으로 된 글자를 표현 • 묵자는 일반적인 글자로 잔존시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글자를 보여줌
지점자	• 점자 타자기의 원리를 이용한 의사소통 기술로 종이에 양각된 점자를 손으로 읽으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
음성	•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 잔존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말로써 의사소통하는 방법
큐스피치	• 일반적으로 큐 사인을 사용하거나 알기 쉽게 큐 사인을 만들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4. 청각·자폐 중복장애

청각장애와 자폐장애가 함께 있는 자녀와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할까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서 인공와우 수술을 했는데도 눈 맞춤도 없고 별다른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각장애와 자폐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자녀에게는 시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인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말을 하지 않는 자폐자녀의 경우 웃거나 소리 지르기, 종이 찢기, 입 모양 흉내 내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와 자폐장애를 모두 가진 자녀의 경우는 청각장애 자녀의 언어특성과 자폐장애 자녀의 언어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각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각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수어는 시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해주면 효과적입니다. 처음 수어를 교육할 때 자녀가 좋아하는 단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수어의 손 모양을 보호자가 만들어 주거나 모방하게 하면 좀 더 쉽게 자녀가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말, 발성, 제스처, 의사소통 행동, 특정 의사소통 방법이나 도구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방법을 의미합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주로 생활 속의 단어를 위주로 가정에서도 학습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문장으로 만들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차츰 발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명칭		내용
한글짱		• 청각장애, 인지장애, 발달장애, 지적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언어장애인들의 언어기초 훈련 및 발음교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오케이톡톡 에듀패드		•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적 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이 의사 표현 및 언어훈련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보조기기
마이토키		• 화면상의 심벌을 눌러 어휘나 문장을 만들어 음성 합성기능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기기 • 사용자가 원하는 심벌 배치 및 어휘 내용 편집 가능, 글자판 기능 탑재로 글자 입력 후 음성합성 출력 가능
커뮤니케이션 빌더		• 커뮤니케이션 빌더 본체와 5가지 프레임으로 구성된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을 위한 보조도구 • 5가지 프레임은 윈도우의 개수만큼 메시지 녹음이 가능
칩톡		• 4개의 메시지를 녹음해서 저장 • 녹음한 후 사각판을 누르면 녹음한 내용이 재생되며, 사각판에는 심벌, 그림, 단어 등을 끼워 사용
구문조합 의사소통기		• 단어나 짧은 구문을 미리 저장한 후에 원하는 단어 버튼을 누른 후 문장 버튼을 누르면 완성된 문장이 재생되는 기기

명칭	내용
위드톡 	- 구어 활동이 어렵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느린 경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적합 기기 - 상황별 20여 개의 문장을 음성으로 출력 가능하고 '명사+조사+하위동사' 형태로 제공 - 키보드터치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키보드스캐닝 기능
키즈보이스 	조음 및 음성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 할 수 없는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중증중복장애, 청각장애 등 모든 의사소통장애인이 사용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보조기기
스피치미러 프로 	- 청각언어장애인의 조음훈련, 청능훈련, 독소훈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사람이 말할 때 입술, 혀, 목젖 등의 변화를 발음기관 애니메이션으로 제공 -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

보완·대체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 별도의 기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명칭	내용
나의 AAC 	- 의사소통 장애인들이 그림이나 사진 검색을 통해 인터넷에서 바로 내려받아 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 기초, 아동, 일반으로 수준이 나뉘어 있음.
MY FIRST AAC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들이 보다 쉽게 세상과 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의사소통 지원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AAC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형, 그림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스마트AAC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상장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위톡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로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인 위톡(WetokApp, 이하 위톡), 위톡 비콘이 있어 사용자의 언어능력에 따라 선택 사용할 수 있음.

03

청각 중복장애의 행동 지원



☞ 대체로 청각 중복장애를 가진 자녀들은 듣는 데 제한적이기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의사소통의 수단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여 행동이 과격해지거나 소심하게 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녀들이 보이는 행동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 각 기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모습을 잘 관찰하여 행동의 원인이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여 바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청각·행동 중복장애

청력이 낮아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행동장애로 인해서 보청기를 던지거나 자주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자녀가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ADHD도 함께 있어 한곳에 잘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거나 과잉행동으로 구르는 경우가 많아 보청기가 망가집니다. 또한, 본인이 귀찮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물건뿐만 아니라 보청기까지 빼서 던져버리곤 합니다. 자녀의 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보청기를 왜 던지는지 이유를 우선 물어보고 보청기가 자신의 몸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보청기를 던지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우선 알아보아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사춘기가 오면서 보청기를 착용한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청기를 보았을 때마다 과격한 행동으로 보청기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속형 보청기로 초소형을 제시하여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보청기가 귀찮거나 보청기가 자신의 행동을 제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청기가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준다는 생각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청기가 초소형으로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보청기를 경량으로 바꾸어 주거나 운동량이 큰 활동의 경우에는 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보청기 및 인공와우 등의 청각장애 보장구는 비싼 기기이기 때문에 평소 청각장애 보장구를 던지려고 하는 행동에 다들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인해 행동이 강화되어, 청각장애 보장구를 던지는 행동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 보장구는 청각·행동 중복장애가 있는 자녀에

게는 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보장구를 던지거나 망가뜨리는 행동은 자신의 몸을 망치는 것이라고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보장구를 망가뜨리는 행동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 표현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나 수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나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경우 자녀들이 하는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거나 공부를 하기 싫다거나 너무 좋거나 등의 행동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각 기능에 맞게 다르게 반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문제행동의 앞과 뒤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바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청각·정서 중복장애

청각장애와 정서장애가 중복된 자녀를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자녀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서장애를 중복장애로 가져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 격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어려우니 혼내거나 타이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상담이나 행동치료 등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각·정서 중복장애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위축된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폭발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위축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대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행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학습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폭발적인 행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정형화되고, 계속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상동 행동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해 행동, 공격 행동 등의 문제행동 등이 나타날 때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나무라기보다는 상담과 행동치료 등을 시행하여 장애로 인해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04

청각 중복장애의 학습 지원



💬 청각 중복장애의 자녀의 학습은 청각장애만을 가진 자녀들의 학습보다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수반된 장애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학습을 지원해 주기 위해 청각장애의 학습법과 수반 장애의 학습법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보호자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청력의 손실에 초점을 두어 학습을 지원하려고 하겠지만, 수반된 장애가 무엇인지가 자녀의 의사소통 양식부터 학습지원 방법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청각 중복장애 학습

보청기조차 필 수 없고 수어도 익히기 어려운 지적능력이 낮은 자녀의 학습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지적장애로 인해서 보청기를 끼거나 수어를 익히기 어려운 자녀를 두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기본적인 학습적 지원을 가정에서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할까요?



청각지적장애 중복의 경우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 중복장애의 자녀의 학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가 가진 잔존청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청각 중복장애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따라갈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잔존청력이 있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잔존청력으로 학습 내용을 들어 학습하도록 합니다. 지적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시각이나 촉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여 주변의 사물을 탐색하고 경험을 쌓아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와 함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촉각을 이용하여 경험하고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일상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주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더욱 잘 기억하고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습을 가르치는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보다 자녀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 최대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보호자는 또래 학부모나 중복장애 보호자회 등에 참석하여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는 수반된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에만 초점을 두고 양육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가정에서 그만큼 더 관심을 두고 인터넷이나 부모회, 선생님, 치료사, 의사 등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각 중복장애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한 전반적 고려사항

- ① **감각기능 향상:** 자녀가 활용 가능한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을 탐색하고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촉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고, 지체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시각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인지적 기술 향상:** 기본적으로 청각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지적능력이 낮게 평가되는데, 자녀의 정확한 지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별화 교육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집니다. 지적능력이 낮다고 해서 자녀의 실제 나이보다 낮은 수준의 단어를 쓰거나 행동을 해주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실제 나이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생활 경험을 쌓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③ **신체 운동능력 함양:**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시각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립 생활훈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립 생활훈련은 대·소변훈련부터 식사 지도, 의복 착용, 청결 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기술은 보호자가 직접 해주기보다는 서툴다 하더라도 스스로 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 자립생활 행동의 필요성을 자녀가 스스로 느끼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대소 근육의 운동과 함께 보행훈련도 가정에서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 ④ **대인관계 기술 지원:** 자폐성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 가정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장애 영역과 중복된 경우에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대인관계를 맺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 ⑤ **학업수행 관련 기술 지원:** 자녀의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을 관찰하여 청각 중복장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지적능력과 주의집중력, 기억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업 수행능력이 낮다고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 치료사 등과 협의를 하여 자녀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학습 진전에 대해 발전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포용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며 함께한다면 차츰 발전해 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⑥ **문제행동 및 상담시행:** 청각 중복장애의 경우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 공격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억박지르거나 어떻게 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왜 자녀가 그런 문제행동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자녀의 감정이나 표현방법을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⑦ **여가생활 지원:**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숨고 감추기보다는 자녀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령기와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나 여가생활을 찾아주고 가정에 서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찾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가생활 등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고민들을 해소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2. 청각 중복장애 지도 유의점

중도중복장애는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자녀가 청각장애가 있지만, 지적장애·시각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중도·중복장애입니다. 일반적인 지도방법으로는 자녀를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면 될까요?



발달 정도를 살펴보고 가장 많이 지원이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두어 지도해야 합니다.

중복장애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중도·중복장애는 중복장애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발달이 느리거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입니다.

◆ 심각한 중복장애(중도·중복장애)

신체, 언어, 인지 등의 전반적인 발달이 잘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허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감각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 동작을 활성화하고, 생활 경험을 넓히고,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가 지닌 신체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미한 청각 중복장애

자녀의 기능과 지능을 고려해서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는 기존에 알던 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익히도록 지도하고, 자녀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학습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자녀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독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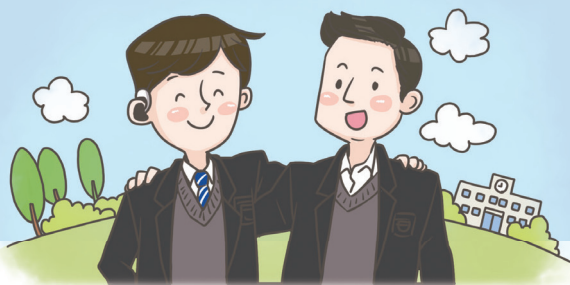
양육사례

우리 자녀는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만 알고 인공와우를 시술하였지만, 점차 자녀가 크면서 행동이 느리고 이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진단평가를 다시 해 보았더니 지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청각장애만 있었다면 수어를 배우거나 구어를 가르치는 등의 의사소통 지도가 쉬웠겠지만, 지능이 낮아 언어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청각장애보다는 우선 손이 많이 가는 지적장애에 초점을 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부모회에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 그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청각장애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니 우리 자녀처럼 중복장애가 아닌 청각장애인들에 관한 정보만 많다 보니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야 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리 자녀와 같은 청각 중복장애 자녀들도 있다고 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 학교에 진학 후에는 우리 자녀와 같이 청각 중복장애 자녀들이 있어 그 부모님과 서로 고민이나 어려움을 나누다 보니 위안도 되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민과 정보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 자녀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자녀가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겪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은 청인학생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자녀들은 청각장애로 인한 제한된 의사소통과 보청기 착용 등으로 인해 청인학생들에 비해 낮은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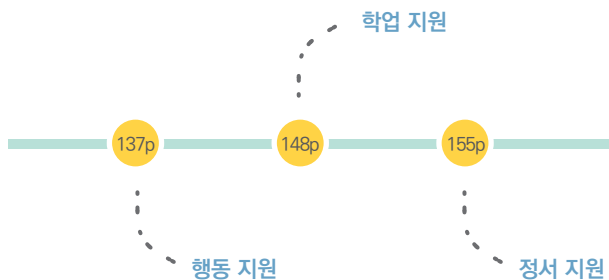
특히, 제한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독립적 사고 능력과 자기 지시 능력, 자기 통제 능력, 감정, 동기, 자기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기, 융통성, 좌절을 견디는 능력,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 유지하기 등과 같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종종 학교폭력이나 이성간의 문제, 학업 곤란, 정서적 문제 등으로 행동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각장애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p a r t

05

행동 및 생활 지원



우리에게 보청기를 끼거나 입술 모양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에게 개인적이며 사적인 선택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복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회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 설명하는 게 무척 피곤해요.
우리에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음을 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마세요.
달아나는 건 우리를 이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거예요.
우리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우리를 더욱 상처받게 해요.
우리도 남들처럼 생각과 감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안녕'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냥 '안녕'이라고 말해주세요….

유튜브 '들리는 사람에게' 청각장애인 16인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

01

행동 지원



💬 청각장애 자녀들이 보이는 행동특성은 청인 자녀들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잘 듣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력적인 행동이나 고집부리기, 소리 지르기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학교폭력이나 성 관련 문제, 이성 문제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청각장애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적응을 못했는데 이제 가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듣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들이 무시하고 따돌리고, 보청기를 했다고 장애인이라고 놀리면서 때리기도 하여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는 비장애 자녀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자신보다 약한 다른 장애학생을 괴롭히기도 하는 등 학교 폭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 발견 당시부터 빨리 착용 할수록 잔존청력을 활용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각장애 자녀는 청력손실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학교폭력도 비장애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특징을 보이지만,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곤란, 사회성 부족, 공감대 형성 부족, 특이행동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의 특징을 이해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폭력금지법이나 각 학교의 학교규칙이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규정 등에서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장애 자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었던 장애 자녀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특수교육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보호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 자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도방법

① 다양한 감정의 종류와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 지도하기

- 다양한 감정 중 화가 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② 싫어,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하기

-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싫다는 의도를 수어나 몸짓 등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합니다.

③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지도하기

- 친구가 했던 욕설이나 상황을 기억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괴롭힘을 당한 날의 일은 꼭 일기에 기록하도록 지도합니다. 사이버폭력에 이용된 채팅방 화면은 저장하도록 하며, 보호자나 선생님 또는 친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보호자나 선생님께 말하기 힘든 경우 경찰에게 신고하여 도움받도록 지도합니다.

④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관해 교육하여 폭력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지도하기

- 폭력과 장난, 친근감의 표현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학교폭력을 행사하면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도합니다. 화가 났을 때 눈을 감고 10초 동안 생각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후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수어 가능한 진술 조력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 조사 시 말과 함께 글로 적어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청각장애 자녀가 글로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각장애 자녀의 행동 문제에 대한 중재 방법

청각장애 자녀가 보이는 행동특성이 듣지 못한다는 청각적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중재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① 수어를 배워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해 나가기

- 청각장애 자녀의 문제행동은 의사소통의 소외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어를 익히는 것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농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보고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하기

- 청각장애의 일차언어와 일차문화인 농식 수어와 농문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문화와 농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중언어·이중문화로서 한국어와 청인 문화 환경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③ 청각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용기 북돋우기

- 청각장애인으로서 자존감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청각장애인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언어적 자기학습 훈련 프로그램 적용 예시

TIP

청각장애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언어적 자기학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행동을 하기 전에 인지적 모델링을 보여주기

- 예를 들어, 보호자는 의도적으로 문제행동 개선 전략을 글자로 쓰고 큰 소리로 읽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모델링을 보여줌.

② 보호자가 지시사항을 소리 내어 말하고, 자녀는 그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③ 자녀는 지시사항을 몸짓 또는 소리 내어 말하면서 과제 수행하기

④ 자녀는 지시사항을 몸짓 또는 속삭이면서 과제 수행하기

⑤ 자녀는 마음속으로 지시하면서 과제 수행하기

2. 청각장애 자녀의 성폭력 예방

청각장애 자녀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에게 성적인 농담이 섞인 문자가 자주 옵니다. 보호자인 제가 봐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자녀도 호기심에 이런농담을 같이 문자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사이버 성폭력도 성폭력의 한 유형에 속하며, 최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한 사이버 성폭력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성 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성폭력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학대,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폭력이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며 사안 발생 시 수화통역사나 필담 등을 통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 자녀들은 또래들과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내려받아 전달하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안 발생 시도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안 처리와 같은 절차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인 자녀와 동일한 방법으로 올바른 성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청각장애 자녀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도방법

•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 구분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좋은 접촉	나쁜 접촉
보호자가 칭찬하며 쓰다듬거나 친구와 악수하는 것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몸 만지기, 갑자기 껴안기, 보보호하기 등

• 내 몸의 안전 삼각지대에 대해 지도합니다.

양팔을 벌려 앞으로 모았을 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신체 부분으로, 이 부분은 가족이라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도합니다.

•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지도하기

감정 일기 그리기, 감정 대화 나누기 등을 통해 지도합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지도하기

밖에서 놀거나 어떤 장소에 갈 때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여럿이 함께 가기, 내 몸 안전 삼각지대를 누군가 만졌을 때 보호자나 교사에게 말하기, 이성과 단둘이서 인적이 드물거나 낯선 곳에 가지 않기 등을 지도합니다.

- 강요받는 비밀에 대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도하고, 보호자, 담임교사,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소지하도록 지도합니다.
- 경찰서(112) 및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117)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도록 지도합니다.
- 장애자녀가 목에 열쇠를 걸고 다녀야 한다면 옷 안으로 열쇠를 집어넣도록 지도하고, 승강기를 탈 때 구석에 서지 말고 CCTV 앞쪽에 서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아파트나 연립주택 거주 시 지하실이나 차고에 들어가서 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낯선 혹은 아는 사람이 내 몸 어디라도 만지려 할 때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소리를 질러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도록 지도합니다.

- 평소 장애학생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보일 때 회피하지 말고 바르게 대답해 줍니다.
- 너무 이른 등교나 늦은 하교를 혼자 하지 않도록 하며, 어디를 가든 꼭 친구나 어른과 같이 다니도록 지도합니다.
- 수련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절대 혼자 가지 말고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같이 가도록 지도합니다.
- 이성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초대할 때에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이성 간이나 동성 간 지나친 애정표현은 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친구와 지나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사법(미소나 손 흔들기 등)을 지도합니다.
-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거나 계속해서 말을 걸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용변을 본 후에 화장실 안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TIP

- 365일 24시간 학교폭력 관련 상담, 수사,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표번호: 117
- 문자: #0117
- 홈페이지: <http://safe182.go.kr>
- 채팅 상담: 안전 DREAM 애플리케이션

해바라기여성센터

- 상담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합니다.
- 대표 상담번호
 -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3-0365
 -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031-816-1374(응급지원), 031-816-1375(통합지원)
 - 부산해바라기센터: 051-244-1375
 -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051-501-9117
 - 제주해바라기센터: 064-748-5117

여성 긴급전화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대표번호: 1366

참고자료

TIP

-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여성 가족부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도란도란(stopbullying.or.kr)'- 교육부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여성가족부
- 장애, 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을 위한 지도서(보호자)- 여성가족부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2014)

3. 이성 문제

① 성적 자기결정권

우리 자녀의 이성교제 너무 걱정됩니다. 인정해 줘야 할까요?

중학교에 가면서 이성에 관심을 가지더니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성 교제를 시작하였어요. 보호자로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이성 친구를 사귀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성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니 반항이 심해요.



**청각장애 자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세요.
이와 더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기의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 주세요.**

청각장애 자녀들도 건청 자녀들과 유사한 신체적 발달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이 두드러지고 생리(월경)와 몽정이 시작되는 등 신체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성적 관심과 욕구가 커지는 등 인간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성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한 인식이나 이성에 대한 감정적 끌림도 뚜렷해집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2차 성징의 발달은 청소년이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시기는 사랑의 표현이 가능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과도기이며, 그 과정에서 미래의

자기 모습에 대한 꿈과 가치관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맞이하여야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품성을 길러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인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성과 관련해 이와 같은 욕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며, 자유로운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성에 관한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때 필요한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알고,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성적 관심이나 욕구를 인정하되, 충동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엄성과 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지 등을 결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뜻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성적 행동을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권리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침해를 거절할 수 있는 것 역시 이 권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접촉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멈추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성적 관계에 있어서도 무책임하게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청각장애 자녀의 성적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한 마음가짐과 노력

첫째,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긍정한다. 즉,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정하지 않으며, 책임있는 성 행동을 할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정확하고 바른 성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에 관한 지식을 대중 매체나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 등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배운다면 왜곡되고 부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 지식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소년용 성교육 지침서나 성교육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고 바른 성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갈등이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또는 일터에서든 사람들 관계에서 성과 관련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주위 사람들과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나 주위 사람들이 청각장애 자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를 익히거나 필담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긍정적 이성 관계 맺기

이성 친구와 욕을 하며 싸울 때가 많아 이성 관계 및 대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각장애가 있는 자녀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인지 남자 친구와 자주 다툽니다. 그럴 때마다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에 걱정도 되고 동성 친구들과는 이렇게 심하게 다투지 않는데, 이성 친구와 너무 심하게 다툰 때가 많아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청각장애 자녀들은 듣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타인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은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자녀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중, 돌봄, 배

려 등은 이때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함양되었을 때 비로소 서로 신뢰하게 되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사람은 모두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저마다의 개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체성 형성 시 자기다움을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떤 남성이고,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다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체성과 다양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존중해야 나의 개성 또한 이해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성 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성 관계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이성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친구 관계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이 가능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듣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와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서로 배려하며,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02

학업 지원



💬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청각적 정보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수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청각적 정보입니다.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은 잘 듣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은 통합교육환경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통합교육 지원

우리 자녀가 잘 듣지 못하지만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난청으로 보청기를 하고 있지만, 잘 듣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니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가라고 하는데요, 일반학급에서 또래들과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각장애 자녀도 청인학생들과 함께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 학생들과 분리되거나 별도의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개인 요구에 따른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와 담임교사, 일반학급 학생들과 긍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통합교육을 위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학교나 교사에게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의 통합교육을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농자녀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방법

- ① 가능하면 교사 가까이 앉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
- ② 반사 빛이 들지 않도록 하며 말할 때 자녀를 보며 말하기
- ③ 그룹토의 때는 청각장애 자녀가 다른 학생을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 배치하기
- ④ 수업 전에 주요 어휘나 구를 칠판에 미리 판서해 두기
- ⑤ 사진이나 시각적 자료를 많이 사용하기
- ⑥ 환경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소음원에서 멀리 떨어져 앉히기
- ⑦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하여 자녀가 교사와 수어통역사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 배치하기
- ⑧ 교과 지도 시 도우미 친구를 지정하여 필기한 내용을 빌려 줄 수 있도록 하기
- ⑨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여 속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 교사에게 속기 지원 신청하기(서울시 거주 청각장애 학생은 서울문자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서울문자통역서비스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난청 자녀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방법

- ① 수업시간에 필요한 선행 필수어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 ② 청각장애 보장구(보청기및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하도록 하고 청각장애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 ③ 시각적 교재 사용하기
 - ④ 말 읽기와 필기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난청 자녀를 위해 도우미 친구를 지정하여 필기한 내용을 빌려 줄 수 있도록 하기
 - ⑤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면 다시 말해 주기
 - ⑥ 말할 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 ⑦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거나 말해 보게 하여 확인하기
 - ⑧ 입술 모양을 과장하거나 빨리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 ⑨ 독서지도 시 시각적 단서가 많은 교재를 선정하여 제공하기
 - ⑩ 학급규칙 준수, 과제하기 등 비장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난청 자녀에게도 적용하기
 - ⑪ 청각장애 보장구(보청기및 인공와우 기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잘 착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 ⑫ 자녀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담임 교사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기
 - ⑬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여 속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 교사에게 속기 지원 신청하기
- (서울시 거주 청각장애 학생은 서울문자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서울문자통역서비스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 학령기 학업 지원

우리 자녀가 일상생활 어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도 이해를 잘 못 할 때가 많아요.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하더라도 청력의 손실로 인해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된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학령기에는 기본 생활습관 형성과 더불어 기초 학습능력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각장애 자녀들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여 잔존청력을 이용하지만, 의사소통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학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각적 정보와 청각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한들은 어휘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학업에

필요한 이해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자녀의 어휘 지도를 통해 학업 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자녀의 어휘 지도 방법

① 책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 설명해 줍니다.

이는 어휘뿐만 아니라 대화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② 나이가 어릴수록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 학업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어휘 활용 연습을 통해 어휘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 바다나 산을 학습할 수도 있지만, 직접 보여주어 관찰하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③ 새로운 어휘를 배운 후에는 적어보도록 합니다.

어휘를 말하는 것과 함께 적어 보게 함으로써 어휘의 오류나 왜곡된 어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자녀가 사전을 찾아 어휘를 따라 읽고 적어보는 활동으로도 어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자녀가 수어를 사용한다면 수어를 병행하여 지도하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언어적 접근에 의하면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면서 구어를 외국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 언어인 수어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⑤ 학교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므로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미리 학습하거나 예습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배울 내용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참여한다면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간접경험이 언어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⑥ 가정에서 청각장애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말해 보게 하고 그것을 적어 보게 하는 활동은 기초 학습능력이나 언어 이해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청소년기 학업 지원

우리 자녀가 중학교에 가니 과목도 많아지고 교실 이동도 있어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합니다. 보호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교과 담임제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교과 교실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학교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에는 학령기와 달리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학습량이 현저히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사춘기가 시작되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나 학습된 무기

력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교과별 특성이 다양하지만, 사전에 학습 내용에 대해 학습하거나 복습 활동을 통해 교과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과 시간표를 익혀 사전에 학교의 시설이나 수업이 이루어질 교실을 미리 확인하거나 교과 준비물 등을 미리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교과에 따른 새로운 단어나 개념 등을 미리 학습하여 수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학습 등을 활용한 보충학습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우리 자녀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1학년 때 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비장애학교와 공부하는 내용이 달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도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병행하여 편성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청각장애 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 특수학교 입학이나 전학을 고민할 때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을 위한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제도’를 이용하면 대학 진학이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학교나 대학별 입학전형을 미리 확인하여 진학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별 진학 담당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실제로 대학 진학에 성공한 사례를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6장 1. 상급학교 진학에 관한 내용 참고)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TIP

지원 자격, 전형 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등 자세한 입학 요강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http://kcue.or.kr>),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국 전문 대학교육협의회,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교 입학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입정보포털- adiga 사용방법

대학/학과/전형→전형정보→전형조건(일반대학, 전문대학 동일)→특별전형→장애인 등 대상자→자료검색→학교명 클릭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 평가는 지필검사로 대체됩니다. 지필검사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며 1명의 수어 전문가가 포함된 총 3명의 시험 감독관이 배치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이라도 듣기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지필검사 필요성이 기재된 담임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지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2).

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 ① 서울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 (영일초등학교, 02-861-2416)
- ② 서울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 (02-956-1038)
- ③ 국립청각장애교육지원센터 : (서울농학교, 02-724-7946)
- ④ 충청북도 청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 : (충주성심학교, 043-238-3230)
- ⑤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
(대전맹학교, 042-280-3673, 상담가능시간 : 평일 08:30~16:30)

03

정서 지원



💬 청각장애 자녀는 청력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완전성, 충동성, 낮은 자아개념, 보청기 효과,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1. 상담 지원

자녀가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잘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서인지, 자신감도 없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 상담을 받거나 이와 함께 병원 치료(약물치료)를 병행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학교폭력이나 주변의 차별적 시선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학교의 Wee 클래스 상담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Wee 센터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www.wee.go.kr)'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증세의 정도에 따라 병원치료나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이러한 특성을 감추려고 하거나 무시할 때 자녀의 우울증 증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와 청각장애 복지관에서는 보호자 상담이나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도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1:1 채팅으로 진행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장 이해력과 작문 능력이 약한 청각장애인 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위한 임상전문가를 선택할 때에는 심리상담 전문 수어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임상전문가가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을 만나본 경험이 전혀 없거나 적은 임상전문가에 의뢰 이루어지는 상담은 청각장애 학생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특정 예후를 간과하거나 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청각장애로 인한 성장 과정의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농인 심리상담가와의 상담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농인심리상담가는 각 지역의 청각장애 복지관과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존감 향상

자녀가 잘 들리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해서 데리고 다니기가 꺼려집니다.



자녀의 장애를 숨기려 하기보다 다양한 공공장소에 노출하여 바람직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나 형제·자매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녀의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한다면 청각장애 자녀가 겪는 심리적 불안이나 수치심은 더욱 클 것입니다. 장애에 대해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녀는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좀 더 많은 장소에 노출시키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시범 보임으로써 공공 예절을 익혀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 자녀의 낮은 자존감은 의사소통의 결함과 또래들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질감 형성

자녀가 난청이 있어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친구들과 외모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각장애는 귀만 안 들릴 뿐이지 겉으로는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는데, 외관상 다르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보청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 자녀가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22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청각장애 학생의 82.2%가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청각장애 학생들은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청인 친구들과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다는 점 이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반면, 청인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만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캠프나 어울림 캠프에 참여하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캠프 활동에 참석한 청각장애 자녀들은 자신과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청각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이고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수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다양한 교외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대학 진학의 꿈을 가지는 사례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자녀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같은 청각장애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더욱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 자녀를 위한 심리 지원 방법

TIP

보호자는 감정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자녀에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청각장애로 인해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을 막아야 합니다.
- 청각장애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생활영역에 대한 토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 청각의 문제와 원인, 청각손실 정도와 그에 따른 영향, 청각보장구와 수술의 가능성, 일상활동에서 관찰되는 청각장애의 정도, 학습에 영향을 주는 부가적인 문제들, 실제 학습에 있어서 청각보장구의 적절성 등에 대해 의논합니다.
- 청각보장구, 수어 등과 같이 청각장애로 인한 물리적인 영향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 자녀가 다양한 생활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치관의 범위를 넓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특정 기술(의사소통 기술이나 사회성 기술 등)을 완전히 습득하는 것이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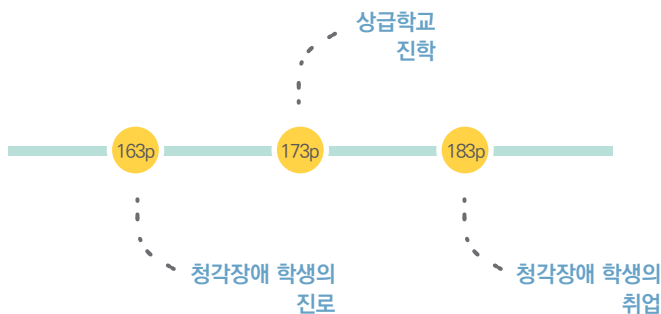
학교 졸업 이후 희망하는 사회로의 진출을 위해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과 더불어 본인과 관련된 환경적인 요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를 떠나 성인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령기 동안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각장애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자녀의 졸업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p a r t

06

진로와 직업



마음 열기

서울예술종합학교에서 무용학을 전공한 청각장애인인 ○○씨는 어릴 때부터 춤 추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문적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해 힙합 댄서로 활동했습니다.

“댄스 공연을 할 때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많은 분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반면 농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제 댄스 공연이 비장애인의 공연과 다를 게 없었던 거죠.

아티스트로서 나만의 색깔을 더 드러내고 싶었고, 다양한 일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핸디 랩, 뮤지컬 작품 연출 일 등을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단원들과 열심히 연습하고 공연을 마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공연으로 인해 사회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느끼면 더 기쁩니다.”

출처: 잡스엔

01

청각장애 학생의 진로



💬 학령기는 청각장애인이 보호자의 견해에 따라서 특수학교에 갈 것인지, 일반학교에 갈 것인지를 진학을 결정하기도 하고, 보호자와 교사가 만들어 주는 환경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1. 청각장애 학생의 진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진학을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자녀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중복이라 대학 진학은 어렵습니다. 졸업 후에 우리 자녀가 진학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청각장애 자녀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전공과에 진학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취업 등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청인과 같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으나, 자녀의 흥미나 적성, 신체적 조건, 진로 계획 등의 조건을 고려하면 전공과 진학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과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 재활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1년~2년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보통 전공과는 각 지역의 특수학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수익자 부담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수업료는 무상으로 이뤄집니다. 보통 11월 중에 서류접수를 시작하여 직업평가와 전형평가를 통해 전공과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청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지도, 의료 재활, 직업 재활, 교육 재활, 사회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신청 후 직업평가, 상황 평가 등을 통해 훈련반에 배치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전국에 5개(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 '일산, 부산, 대전, 대구'소재 직업능력개발원 4곳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입소를 신청할 수 있고, 전액 국비로 교육훈련을 6개월~최대 2년 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신청이나 직업능력개발원에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기숙형 장애인 전용 공공 직업훈련 기관으로 장애정도 및 학습능력에 맞춘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융·복합훈련 운영	특화훈련 운영	신산업 훈련 운영	신산업 훈련 운영
기초부터 복합기능 기술자 양성을 위한 수준별 전문 훈련	장애 특성 및 개인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운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훈련 직종 운영	건강관리, 심리·인지 재활, 신체능력 등 개인별 프로그램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훈련기관	청각장애 전용 훈련 직종	전화번호	FAX
일산직업능력개발원	CADCAM, 전자기기	031-910-0800	0503-470-0400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네일아트	051-726-0321	0503-470-0500
대구직업능력개발원	반도체디스플레이	053-550-6000	0503-470-0600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외식응용제빵,스마트전력전자	042-366-5412	0503-47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입학안내

입학안내

▶ 모집요강

- (대상)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기간) 1개월 ~ 최대 2년(개인별 학습성취도 및 취업 연계에 따라 수시 훈련 수료)
- (모집) 연중 수시 모집

▶ 훈련특전



▶ 입학절차

① 입학상담	② 선발평가	③ 합격자 발표	④ 입학
- (내용) 구직자, 훈련 희망자 입학상담 진행 - (장소)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시기) 연중 수시	- (내용) 기초학습능력, 작업 평가, 면접 등 진행 - (장소) 직업능력개발원 - (시기) 월별 평가 진행	- (내용) 운영위원회 상의를 거쳐 합격자 선정 - (장소) 직업능력개발원 - (발표) 합격여부 개별 통지	- (내용) 오리엔테이션 후 훈련직종 배치 - (장소) 직업능력개발원 - (시기) 연중 수시 훈련

- 지역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스템에 따라서 직업 재활과정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 청각장애 학생의 진로 지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지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해서 사회인으로 성장하였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기별 어떤 내용으로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까요?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따라 진로지도 때 지원해야 하는 방법과 내용이 다릅니다. 각 시기에 맞는 지원을 위해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학령기는 진로를 결정하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원과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기마다 그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진로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 초등학생 시기

직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체험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주변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는 자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서 흥미나 적성을 찾고 특기를 계발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 중학생 시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중점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을 찾는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주시고, 사춘기로 신체 성장과 함께 겪게 되는 청각장애 보장구(보청기 및 인공와우 기기) 착용으로 인한 외모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고등학생 시기

탐색한 진로를 선택하여 준비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한 후에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 경험과 관련하여 어휘를 익히고 필요한 단어를 쓰도록 하고, 자신의 의견을 계속 표현하고 자기주장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령기 전반

청각장애 학생의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또래와 동일하지 않은 학업성취와 함께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령기와 청소년기 동안 독서를 통해 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일기 쓰는 습관을 통해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문해력의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직업 선택의 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주장기술과 함께 자기결정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보호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믿어주고 격려와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기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초등학교	• 직업 이해: 주변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관심을 갖도록 지원 • 직업 인식: 일의 소중함과 보람을 경험하도록 지원 • 자기 인식: 자신의 흥미나 소질을 파악하도록 지원	• 자녀의 특성 파악 • 청각훈련 및 언어치료 • 자녀의 특기개발 •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지원
중학교	• 자기 인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어떤 적성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원 • 진로 탐색: 다양한 직업 관련 체험을 통해 직업들을 경험해 보도록 지원 • 진로 계획: 고등학교 진학과 미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성 및 대인 관계 기술 익히기 •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성장 경험 • 긍정적 자아 정체감과 사회적 기준 등 제시
고등학교	• 자기 인식: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파악하도록 지원 • 직업 기능: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도록 지원 • 진로 계획: 앞으로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하도록 지원	• 직업과 기능적 생활기술 중심 지원 • 사회적응훈련/사회적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 제시

청각장애특수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실과’, 중·고등학교 때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전문교과’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폭넓은 기초지식과 기능·기술을 겸비한 기술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현대 산업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확고한 직업관을 가지고 장차 기술인이 되어 자립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이 투철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학기

초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교사와 협의하여 어떤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지 상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자녀의 직업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과정에는 16개 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명	교과목표
산업미술과	- 디자인에 관한 기본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미적인 구상력과 표현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의 실무에 종사할 기술인을 양성한다. - 공예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공예산업 분야의 생산관리의 실무에 종사할 기술인을 양성한다.
인쇄과	인쇄공업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인쇄물의 기본적 표현과 인쇄 기계의 운전 관리 등의 삶에 종사할 기술인을 양성한다.
한재·양재과	의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의생활을 합리적·창의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태도를 기르며, 의류 재료와 제작 등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여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자수 편물과	자수 편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이 분야의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을 양성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전자 계산기과	전자계산기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정보처리 개념을 이해하게 하여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원예과	원예작물의 재배 및 농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원예를 중심으로 한 중견 영농인, 관련직에 종사할 중견 기술자를 양성한다.
축산과	가축 양성 및 농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축산을 중심으로 한 중견 영농인, 관련직에 종사할 중견 기술자를 양성한다.원
상업미술	상업에 관한 디자인 영역의 조형 활동을 통하여 상업디자인 기능과 창조력을 기르게 한다.
공예과	공예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이해하게 하여 공예 산업분야 생산관리의 실무에 종사할 기술인을 양성한다.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수행하고 가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교육 이전에 기초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기초교육을 강화한 다음에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큼니다. 자기 성장의 기초가 형성되지 못하면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게 되므로 매우 곤란해집니다. 보호자가 자녀들의 기초교육을 가정에서도 계속하여 진로와 직업에 대해 자녀가 파악하고 접근해 가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성취 욕구가 포함되지 않은 직업교육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 보호자가 직접 자녀의 진로 지도를 하는 방법

진로 지도를 보호자가 가정에서 실시하기란 막막하고 어렵지만, 간단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 자녀들의 정확한 진로를 설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자녀와 함께 자녀의 특성과 진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한다는 것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단계는 ‘장래희망 적기’입니다. 1단계는 자녀가 장래희망 7가지를 차례대로 적도록 합니다. 7가지에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어울릴 것 같은 직업과 자녀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을 골고루 적도록 합니다. 개수가 꼭 7개일 필요는 없지만, 7개보다 적으면 곤란합니다. 7개보다 적다면 그만큼 직업의 종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상세하고 다양한 직업의 종류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지도 평가서

번호	장래 희망	평가항목							순위
		성향	학업 성적	과제 집착	창의성	수리력	발표	글쓰기	
1									
...	...	...	...	...	...	...	...		...
7									
자녀 평가									

2단계는 '장래 희망 평가하기'입니다. 2단계는 적어놓은 장래희망의 직업을 생각 하면서 보호자가 각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전에 적어 놓은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면 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각 내용은 그에 맞는 항목 인 경우에는 '1' 아니면 '0'이라고 표시합니다.

- ① 성향은 직업이 외향적인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직업이 외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면 '1', 무관하면 '0'이라고 표시합니다.
- ② 학업성적은 직업이 높은 학업성적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직업이 대학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이라면 '1', 아니라면 '0'이라고 표시합니다.
- ③ 과제 집착은 직업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항목입니다.
- ④ 창의성은 직업이 아이디어나 재치, 응용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 ⑤ 수리력은 직업이 수학적인 능력인 계산이나 수학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 ⑥ 발표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일이 많은 직업인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 ⑦ 글쓰기는 직업이 글 쓰는 실력이 좋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3단계는 '자녀 평가하기'입니다. 3단계는 자녀가 각 장래희망에 대한 평가항목별 로 어떤 특성인지를 객관적으로 표시합니다. 2단계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경우에는 '1',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합니다.

- ① 성향에는 자녀가 활발하고 외향적인지, 적극성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면 됩니다.
- ② 학업성적은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지를 나타내면 됩니다.
- ③ 과제 집착은 자녀가 어떤 것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하는지를 나타내면 됩니다.
- ④ 창의성은 자녀가 생활하면서 기발한 생각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지를 나타내면 됩니다.
- ⑤ 수리력은 자녀가 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계산 등을 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면 됩니다.
- ⑥ 발표는 성향과는 다르게 앞에 나서서 발표를 잘하는지, 흔히 말하는 무대 체질 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⑦ 글쓰기는 자녀가 글쓰기를 좋아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4단계는 ‘진로 선택하기’입니다. 4단계는 2단계와 3단계의 결과를 맞춰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의 직업 성향과 3단계의 자녀 성향이 둘 다 ‘1’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자녀에게 적합한 장래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가장 유사한 직업이 1순위가 됩니다.

이 표를 사용하여도 자녀의 특성과 비슷한 직업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향, 학업성적, 과제 집착, 창의성, 수리력’의 5개 항목 중에서 ‘1’로 표시된 것을 하나만 ‘0’으로 바꾸어 결과를 맞히면 비슷한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맞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내용을 수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손 협응력, 체력, 사회성’ 등으로 내용을 바꾸면 자녀에게 더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로지도 평가서 수정 예시

번호	장래 희망	평가항목							순위
		성향	눈손 협응력	체력	창의성	사회성	발표	글쓰기	
1									
...	...	...	...	...	...	...	...		...
7									
자녀 평가									

진로 지도 관련 정보

TIP

잡에이블

www.jobable.kr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포트폴리오관리, 구인·구직, 취업가이드, 커뮤니티 제공

커리어넷

www.career.go.kr

직업정보,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교육자료, 동영상 제공

02

상급학교 진학



☞ 전환 교육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의 사회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서 상급학교로의 진학도 담당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우선 배치’의 과정을 거쳐 진학하거나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진학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학은 장애 정도나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우선 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1권 가족 지원 참고)

1. 초등학교 입학 지원

자녀가 고도 난청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난청이라 학습에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입학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 생활, 인성의 각 부분에서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 학습 적응 고려점

자녀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이나 수업은 이전 학습의 다음 단계로 구성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청각장애 자녀들이 학교의 소란한 소음 상황 속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수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특히, 국어교과는 청각장애를 위한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교육에 대한 선수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수학교과는 100까지의 수와 수의 가르기, 모으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 개념을 생활 속에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특성으로 글을 읽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학 전부터 다양한 독서를 통해 글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합니다.

◆ 생활 적응 고려점

청각장애로 인해 배려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녀의 청력 정도에 대해서 알리고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청각장애 자녀들이 수업을 받을 때 말 읽기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앞자리에 앉아야 수업의 집중력과 이해가 높기 때

문에, 이에 대해서 담임교사에게 입학 전이나 자리 배치가 정해지기 이전에 전달하여 자녀가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의 청각보장구 관리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보청기의 배터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녀가 보청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하여야 합니다.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에는 격한 운동이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귀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반 친구들에게 안내하고 조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알림장 서비스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담임교사와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성적 고려점

교사와의 생활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도록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영이나 구기 종목 등과 같은 운동은 또래들과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자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과 고민, 기쁨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기표현의 기회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2. 중·고등학교 입학 지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리고 수업도 잘 따라갔는데, 중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니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해
알아보고 진학과 입학 전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봅
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청각장애에 대해 부정하거나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나 인공와우는 외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자 자녀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보청기를 끼지 않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장애를 부정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학교생활에서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환경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미리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으로는 수준별 수업이나 교과 수업으로 교실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잦은 교실 이동으로 조명과 앉는 자리가 변화하여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교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 배치를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진로와 학교생활의 적응 여부 등에 대해서 알고 적절히 진학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의 학교생활에 대해 들어보고 일반학교로 갈 것인지 특수학교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대학진학을 고려하여 학습에 집중하려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취업 등의 진로에 집중하려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인문반과 직업반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지도하므로 반 선택 시 진로를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학교 배치

청각장애가 있는 우리 자녀는 어느 학교로 가야 할까요?

청각장애는 눈에 띄지 않는 장애라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보내기도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일반학교에 가면 혹시라도 장애로 인해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까봐 어디로 보낼지 고민이 됩니다. 일반학교와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일반학교와 청각장애 특수학교 중 어느 곳을 선택할지는 청각장애의 청력 정도와 지원 필요 정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학생 2,961명 중 82.2%(2022. 특수교육통계)가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애학생들의 일반학급 배치비율이 73%라고 할 때, 청각장애 학생의 일반학급 배치비율이 높습니다.

일반학교는 청각장애 자녀가 청인 친구들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많이 얻게 되고, 서로 배려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일반 교육과정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구어 위주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되고,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각 과목에 학습을 집중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는 자리 배치나 말 빠르기 등의 수업 조정이나 고려가 어려워 청각장애 학생이 학습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의미가 전달되지 못해 오해가 생겨 왕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청각장애 학생의 성격이 난폭하거나 소심하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는 특수학급에도, 일반학급에도 섞이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청각장애 자녀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수어나 구어 등의 자신들만의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되고, 청각장애인으로써의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수업도 청각장애 자녀에게 맞추어 수어와 함께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청각장애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청인과의 소통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대부분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초등학교로 입학を 시키게 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학교에서 기대치 이상의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겪는 차별이나 오해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이나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 배치를 특수학교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학에서는 두 학교의 특징을 언급하였지만, 이 보다는 자녀의 선호도와 적응 정도 등을 파악하여 많은 대화로 적절히 진학을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OO학교 이OO학생 어머니

우리 아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하였지만 예후가 나빠 실패한 고도난청입니다. 잘 듣지는 못하지만,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발성을 위해 비눗방울 불기, 풍선불기, 수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구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서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담임선생님께 자리 배치와 배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오히려 일반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려고 노력하느라 아이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곤 했고, 집중 할 수 없어 성적도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아보고 다른 장애학생 어머니들과 소통을 시도하였지만, 듣지 못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학급에 소속될 수 없었습니다. 특수학급에 속해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까지 선생님의 관심이 미치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갈 관심이 줄어든다며 입급을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반학교에 다니는 동안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정체성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중학생 때 우리 아이가 잘 듣지 못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어 왕따도 당하고, 순했던 아이가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 청각적 어려움으로 천천히 알려주어서인지 느린 진도 때문에 따로 제가 학습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자녀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학교 배치를 잘 바꾸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욕심보다는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도록 앞으로로도 많은 대화로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대학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장애인 특별전형은 각종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또는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이유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각종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특례 입학 전형은 장애인만 응시가 가능하고, 그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청각장애 자녀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우선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려는 학생은 대학에서 정하는 전형기준을 확인한 후 전형에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혹은 추천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자녀가 대학을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청각장애가 있어 어려운 대학 수업을 잘 따라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학에서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각장애 자녀가 대학수업을 들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업 지원에는 속기사나 수어통역사, 원격 수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대학은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대학에 문의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복지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원격수업 지원 등의 다양한 수업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② 전문교육지원 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자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이 밖에도 지원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영역에 대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AUD company 쉐어타이핑(실시간 속기 플랫폼)

TIP

- 듣는 데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일상생활에서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속기사가 타이핑한 내용을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자막으로 실시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용방법: 청각장애인이 쉐어타이핑앱 다운로드→속기사는 PC나 노트북으로 홈페이지 접속→방 개설하기→청각장애인은 앱을 실행해서 개설된 방으로 들어가기→속기사는 타이핑으로 실시간 속기 전송
- 문의: 홈페이지 www.sharetyping.com

◆ 청각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2년 과정의 전공과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전공과는 면접과 시험을 통해 입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기능과 직무 능력,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 교육, 수어 교육 등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취업률도 높고 취업 후 사후 지도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와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운영내용
서울농학교	바리스타, 제과·제빵
서울애화학교	기술전공과: 「인터넷 정보 전공」 전문학사 학위과정 생활전공과정: 일상생활자립기능, 직업소양과 태도 교육
충주성심학교	바리스타
전주선화학교	조립포장, 사회적응, 제과제빵, 섬유 공예
메아리학교	전공실습 : 도예, 목공예, 제과제빵 선택실습: 천연염색, 다육이 화분, 천연염색, 비즈공예, 톨페인팅, 드라이플라워액자, 위빙, 바리스타, 로스팅

03

청각장애 학생의 취업



☞ 보통 청각장애는 그 장애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직업을 가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단순 생산·제조 분야에서는 취업률이 높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각장애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교육이나 정보, 일상생활 전반과 진로 결정이나 직업 선택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한적인 직업 선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1. 청각장애인의 취업률

청각장애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률은 어떨까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 청인들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우리 아이도 취업할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인의 취업률은 다른 장애 영역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이직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청인과 비슷한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동료와의 관계나 업종, 직업재활 등에 따라 다른 장애영역보다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 유형별 취업률은 지체장애인 고용률은 45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각장애인(39.7%), 청각장애인(32.2%), 발달장애인(28.9%), 기타 장애인(21.4%), 뇌병변장애인(1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직장은 디자인이나 컴퓨터 직종이고, 개인에 따라서는 복지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중복장애의 경우는 보호작업장에서 단순 직업에 참여하거나 따로 지원을 받아 고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희망하는 진로와 현재 자녀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6대 장애 유형별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원수	비중	소계	취업자	실업자				
지체장애	1,205,579	46.8	552,865	516,256	36,609	652,714	45.9	6.6	42.8
뇌병변장애	242,185	9.4	38,181	32,081	6,100	204,004	15.8	16.0	13.2
시각장애	250,859	9.7	107,972	99,600	8,372	142,887	43.0	7.8	39.7
청각장애	392,721	15.3	133,837	126,561	7,276	258,884	34.1	5.4	32.2
발달장애	209,497	8.1	63,114	58,602	4,512	146,383	30.1	7.1	28.0
기타장애	274,066	10.6	63,980	58,704	5,276	210,086	23.3	8.2	21.4
장애인구	2,574,907	100.0	959,950	891,804	68,146	1,614,957	37.3	7.1	34.6

주) "기타장애"는 언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장애,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청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이 가진 능력과 개발 가능한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 음성언어와의 긴밀성이 높은 직종보다는 시각적·감각적·신체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수행이 더 효율적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런 특성에 맞추어 직업을 개발하거나 대학진학 또는 전문과정 훈련 입학 등 다양한 취업 지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 내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이나 필기 지원으로 수행이 가능한 직종의 개발과 전문 직종 진출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각장애인과 가족들은 직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직업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다각적이고 다방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청각장애인의 취업 특성

청각장애 자녀가 취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이가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해요. 청각장애인으로서는 겪는 어려움이나 취업 특성을 알아야 직업 등을 선정하거나 취직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하나요?



청각장애인의 취업은 장애 정도와 가족들의 관심 정도가 어떨지,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특성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청력의 손실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업성취 수준의 미달과 문해력의 부족, 청각장애인들만의 어울림, 고집이 세고 강한 자기보호 본능으로 인한 사회성 부족,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한 동료나 회사 등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자기계발 의지 부족, 강한 피해의식 등의 특성이 있어 원활하고 원만한 직장생활 및 장기근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도 크고, 일정 부분 오히려 소통 부족에서 오는 선입견일 수 있겠지만, 장애의 특성상 사회성 형성에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지능, 흥미, 적성, 인성, 가치관,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요인 중 같은 지적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청력손실이 다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특히, 청력의 손실로 인해서 말의 명료도가 낮아 명확한 의사전달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해 제대로 된 수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특성으로 보통 청각장애인은 언어구사력이 필요 없거나 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청력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장애는 보청기를 사용하여 들을 수 있는 경도난청부터 아예 들을 수

없는 농까지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취업의 형태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어떤 취업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자녀들의 청력에 맞는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취업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청각장애 자녀가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 능력에서 필수적인 자기결정력과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적당한 관심을 가지되, 청각장애자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애 정도에 따른 특성

구분	고도난청	경도난청
장애 특성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만, 청력을 활용한 활동엔 어려움이 있음	-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좌절감을 가짐 -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비교적 적음
↓		↓
취업 특성	㉠ 취업현장의 부적응 행동이 없음 ㉡ 사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봄 ㉢ 청각장애인들과의 결속력이 강함 ㉤ 청력을 이용하지 않은 다른 강점들을 활용한 직업을 가짐	㉠ 청각장애인이 있는 취업현장에서는 부적응 행동이 비교적 적음 ㉡ 청각장애인들과의 결속력이 강함 ㉢ 청력을 이용하지 않은 다른 강점들을 활용한 직업을 가짐

◆ 가족의 관심 정도에 따른 특성

구분	지나친 관심	적절한 관심	무관심
취업 특성	직업의 상당부분에 대해 관여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 에 따라 취업의 유지 여부 가 결정됨	청각장애인 스스로가 직 장생활의 어려운 점을 감 당 할 수 있고, 그 이해관 계를 잘 이해하여 직장생 활을 원만하게 유지함	청각장애인 혼자만 어려 움을 감내하고 정보를 조 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직장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교육 정도의 특성

구분	특수교육	통합교육
장애 특성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 아 들이며 장애 친구들과 원만한 상호작 용을 경험함	다소의 건청인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조 직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됨
	↓	↓
취업 특성	㉠ 취업현장에서 위축이나 긴장감 없이 잘 적응함 ㉡ 청각장애인 동료와도 잘 어울림 ㉢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 구어에 익숙하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함 ㉡ 수어와 농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청각 장애인 동료들과 어울리는 데 시간이 걸림 ㉢ 건청인들과 함께하는 환경에서 있었 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흐 름을 잘 파악하는 편임

3. 청각장애인의 취업 형태

청각장애인의 취업은 어디로 하나요?

고3이 되어서 청각장애인인 우리 자녀의 취업을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최근에 많이 취업하는 분야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취업은 청력의 손실 정도와 장애 수용 정도 등에 따라 청인과 동등하게 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수도 있고,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적성에 맞는 사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스스로 알아볼 수도 있고, 각 지역의 직업재활훈련센터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등을 찾아 가서 자녀에게 취업을 위한 평가나 훈련 등의 도움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의 형태는 경쟁 고용, 지원 고용, 보호 고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쟁 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이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입사하고 근무하며, 동일한 처우를 받는 고용 형태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특별한 지원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청력 수준이 높아 따로 수어 지원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자신감이 높은 경우, 작업 능력이 좋은 경우에 이 형태로 취업을 합니다.

지원 고용은 상대적으로 청인과 같은 조건에서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체에서 현장훈련을 거쳐 배치하여 실습을 통해 기술과 직업 적응력을 길러 취업을 이끄는 형태로, 옆에서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고용 형태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직업 능력평가 결과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심리적·기능적 적응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형태로 취업을 합니다.

보호 고용은 일반사업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경쟁 고용이나 지원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준비된 환경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형태의 고용입니다. 보호를 받는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중복 장애의 경우 이 형태로 취업합니다. 특별히 취업을 위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인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만 모집하기 때문에 직접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여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청각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지원

자녀와 저의 진로 희망이 다릅니다. 자녀에게 맞는 직종을 찾고 그 직종으로의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자녀가 사무직에 종사했으면 하는데, 남자이고 공업고등학교에 다녀서인지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와 자녀의 진로희망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 자녀가 자신이 어떤 직업적인 취향이나 흥미가 있으며, 어떤 직업이 맞는지 알기 위해 직업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평가는 학생의 직업 흥미나 적성, 능력, 강점과 약점, 기능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직업의 내용과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직업 결정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재활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맞춤형 훈련센터를 운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재학생, 구직 장애인 대상으로 심리평가, 작업표본 평가, 신체능력 평가, 행동 관찰 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를 시행합니다.

청각특화훈련

TIP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지원대상	만 15세이상의 중증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신청각 교육환경: 신청각 교육훈련 교수법 및 실습실, 청각장애인 당사자 상담사 상담, 전담 수어 통역사 배치, 청각 편의기기 지원 • 교육기간: 6개월~최대 2년까지 • 혜택: 교육훈련비용 무료, 교재 및 실습복 지급, 생활관 및 급식 제공, 훈련 준비금 및 훈련수당 지급(해당자에 한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제출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맞춤형 훈련센터

장애인 및 대기업의 실제수요에 맞추어 맞춤훈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 전문 기관입니다.

- 맞춤훈련 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 취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 배치 및 즉시 가용인력 활용
 - 재교육에 대한 시간 및 경비절감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훈련생 평가/선발 및 교과과정 설계 직접 참여
 - 현장 실무중심의 교과편성 및 운영, 적응/만족도 제고
- 훈련 특전
 - 교육훈련비용 전액 무료(교재 및 실습재료 포함)
 -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4,000원) 및 교통비, 식비 지급 ※수당 충족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 중식 제공, 상해보험 가입
- 문의 및 접수처

맞춤센터	전화번호	FAX
서울맞춤훈련센터	02-2262-0900	0503-470-0012
인천맞춤훈련센터	032-363-1400	0503-470-0061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	041-537-5600	0503-470-0077
전주맞춤훈련센터	063-219-4000	0503-470-0062
창원맞춤훈련센터	063-219-4000	0503-470-0707
제주맞춤훈련센터	064-717-6700	0503-470-0063
구로디지털훈련센터	02-6343-5700	0503-470-0117
판교디지털훈련센터	031-290-3800	0503-470-0370

5. 청각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

자녀가 취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청각장애인은 취업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자녀가 취업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로서 어떤 노력을 해주어야 할까요?



자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취업과 그 유지를 돕기 위해서 보호자는 우선 자녀의 장애를 인정해야 합니다. 난청과 달리 농자녀에게는 그들의 언어로서 수어 사용을 권장하고, 농인들의 고유한 문화로서 농문화(Deaf culture)를 이해시켜 나가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자립이나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자녀가 취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이해와 정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업체를 선택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의 취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 능력도 함께 길러주어 스트레스 등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현장실습, 사업체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에 필 로 그

가이드(guide)는 외래어입니다. 영영사전에서 그 뜻을 보면 ‘여행에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거나 안내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 인생, 진로 설정을 돕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이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행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지가 처음이라면 가이드의 존재와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이드가 있음으로써 필수적인 관광지를 빠뜨리지 않고 볼 수 있으며, 숙박이나 교통에 드는 수고스러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섭렵할 수 있으며, 자칫 모를 위험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난 음식을 소개받고 접해볼 수 있는 것도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여행지에 익숙한 여행자라면 가이드를 동반한 여행은 오히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여행자는 가이드가 소개하는 여행지보다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설명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별해서 맛볼 수 있는 특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여행만의 장점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전자에 초점을 맞춰 기술되었습니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새내기 학부모님이 이 책의 독자입니다. 장애 양육의 긴 여정에서 만나게 될 인생과 역경, 그리고 보람에 대해 가이드의 시각

으로 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여행은 다시 가 볼 수도, 마친 후 후회해서도 안 될 여행이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선배 부모님과 논의 를 통해 그 핵심 내용을 선별하고 안내하고자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집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미리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의 입장에서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과 토론의 연속이었습니다. 좌고우면(左顧右盼)의 상황에서 늘 판단의 기준은 새내기를 위한 가이드였습니다. 토론이 거듭될 때마다 답아야 할 내용은 많아졌는데,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 Q&A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돌이켜 보면, 집필 초기에 더 많은 시간을 ‘무엇을(what)’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구책임자의 몫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솔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총 6권의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열정을 쏟아주신 집필위원님과 길잡이 역할을 다해 주신 학부모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쯁록 이 가이드북이 장애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님께 조그마한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연구·집필진을 대표하여 **김경현** 올림

참고문헌

1. 한국농아인협회(2006). 『한국수화 첫걸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2. 한국난청인교육협회(2014).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성공적인 통합교육 지침서』. 군자출판사.
3. 부산광역시교육청(2014).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 부산광역시교육청.
4. 유은정 외 7명(2015). 『청각장애아동 교육- 이론과 교과지도』. (주)학지사: 서울.
5. 이규식 외 공저(2011). 『청각장애아 교육』. (주)학지사: 서울.
6.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4). 『2014 가족지킴 가이드북-청각장애편』. 서울시복지재단.
7. 문혜연(2007). 『청각-자폐 중복장애아동의 수화학습에 관한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7).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 삼일기획.
9. 대구대학교 도서관찬위원회(1999). 『특수학교 치료교육활동 교사용지도서: 언어치료 보완교재 I, II, III, IV』.
10. 이정학, 이경원(2005). 『보청기평가』. 학지사: 서울.
11. 이필상 외 5명(2015). 『청각장애아동교육의 이해』. 학지사: 서울.
12. 허승덕 외 2명(2006). 『재활청각학』. 시그마프레스: 서울.
13.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2012). 『청각장애아동 교육』. 양서원.

참고사이트

1. 국립특수교육원 <http://nise.go.kr>
2. 여성가족부 <http://moge.go.kr>
3.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nhis.or.kr>
4. 나는 귀머거리다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659934&weekday=>
5. 소리 이비인후과 <http://www.soreeclinic.com>
6. Cochlear(<http://www.cochlear.com/wps/wcm/connect/in/home>)
7. 청음회관 www.chungeum.or.kr

연구·집필진 명단

기획 및 연구

김경현(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백제은(익산궁동초등학교, 교사, 기획 총괄)

강경숙(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집필 총괄)

집필진(가나다순)

고찬영(합성초등학교, 교사)

공진하(한국우진학교, 교사)

권기홍(대구덕희학교, 교사)

권순황(한국국제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3권 집필팀장)

김난영(희망가득의원, 언어재활사)

김영일(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2권 집필팀장)

김은영(한사랑학교, 교사)

김인희(서울맹학교, 교사)

박계숙(전주은화학교, 교사)

박미승(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 교사)

이경아(한국장애인부모회, 학부모)

이성봉(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6권 집필팀장)

이학윤(동현학교, 교사)

이해영(사우초등학교, 교사)

정유진(성남성은학교, 학부모)

채수정(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1권 집필팀장)

표윤희(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5권 집필팀장)

한상규(밀알학교, 교사)

홍정숙(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4권 집필팀장)

연구협력관

김선희(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협력업체

생각나눔, (주)소프트젠, 이미지포유



장애학생 부모

청각장애 편

양육 지원 가이드북

발 행 일 2017년 11월 30일
발 행 인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은숙
발 행 처 국립특수교육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으로 40
www.nise.go.kr
T. 041-537-1500 F. 041-537-1450

디 자 인 도서출판 생각나눔
제 2008-000008호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8길 41, 한경빌딩2층
www.생각나눔.kr
T. 02-325-5100 F. 02-325-5101

I S B N 978-89-6095-634-6 94370
978-89-6095-633-9 (세트)
<비 매 품>

※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 일부 내용이 현행화 되었습니다. (2022.11.)